



東國大同窓會報

발행인 이연택 · 편집인 문병호 100-718 서울특별시 종로구 관훈동 197-28 백상빌딩 302호 (재)동국장학회 T.02)733-3991~3 인쇄 (주)한우리SJM

2013년 (단기 4345년) 6월 25일 (화)

http://dongguk.or.kr

제229호

‘준법’ 정관 10만인 서명 불붙었다

‘위법’ 개정안 표결 강행에 동문·불자 여론 폭발 전국서 행동 “재단구성·종단관행 바꾸는 것이 ‘일류 동국’ 첫걸음 안팎 한 목소리 토론회 합의 도출 안되면 헌법소원 포함 법적대응 불가피 할 수도

10개월여를 끌어온 모교 개방이사 선임 문제가 마침내 동문과 불자 등 법 동국 가족의 ‘준법’ 정관 채택 촉구 10만인 서명운동으로 번졌다.

관계 법령을 무시하고 모교 경영에서 설립자인 조계종단의 통제력을 강화하려는 학교법인 동국대학교(이하 재단) 정관 개정안이 이사회에 무리하게 상정되어 부결된 것을 계기로 재단의 현 상황을 “이대로 둘 수 없다”는 여론이 행동으로 표출된 것이다.

정관을 법에 맞게 제대로 고쳐 그동안 이어져온 탈법, 편법, 불투명 잡음과 변칙의 소지를 원천에서 차단하고 적법, 투명한 ‘정도 책임 경영’의 기틀을 마련하는 것이 ‘일류 동국’으로 가는 출발점이라는 동문사회의 공론이 이제 전 사회에서 공감대를 형성할 것으로 보인다.

총동창회는 이같은 움직임에 대응해 ‘준법’ 정관 자체 시안을 마련하고 6월중 모든 이해 당사자가 참여하는 공개토론회를 열어 준법 안을 최종 확정할 것을 6월17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동국포럼을 통해 재단 측에 제안했다.

토론회를 통해 합의가 도출되고 순리대로의 정관개정이 성사될 경우 일단 사태는 마무리 되지만 토론회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동창회는 자체 안을 이사회에 상정하고 처리를 요청할 방침이며 이 과정에서 자승 총무원장, 정련 이사장측이 또 다른 불법, 변칙을 시도한다면 총동창회로서는 정련이사장 등의 직무정지가처분과 현행 정관의 적법성을 따지는 헌법소원까지 모든 법적 구제 청구가 불가피하다고 보고 동문 법조인들을 중심으로 ‘법률대응팀’을 별도 구성, 가동했다.

울들어 처음 열린 동국포럼에 이어진 긴급 동문모임에서 참석 동문들은 ‘10만인 서명운동 선언’을 열렬한 환호와 박수로 채택하고 전원(213명)이 서명에 참여했다.

선언은 불법적인 정관개정 시도 중단, ‘준법’ 정관 채택, 스님중심 이사회 운영 시정, 이사회 문호 개방 등 5개항의 요구와 결의를 담았다.

〈관련기사 2면〉

포럼을 시발로 18일부터 전국에서 학과, 지역, 학번, 동호회 등 단위 조직별 보고회와 동문 대상 서명 캠페인이 시작되었으며 조계사를 비롯한 전국의 주요 사찰과 암자, 불교 시설 등에서는 불자들을 대상으로 한 서명운동이 함께 진행되고 온라인을 통한 전자서명 접수도 개시됐다.

서명은 1만명 단위로 모여져 재단, 종단, 정부, 사법 당국에 ‘준법’ 정관 채택을 촉구하는 청원 자료, 또는 법률 구제 신청 보조 자료로 활용된다.

서명 발의 5일만인 21일까지 전국에서 1천여명이 서명에 참가했으며 10만인 서명은 늦어도 9월말까지 완료될 예정이다.

연세대 출신으로 연세대 재단 이사이기도 한 유형섭 전장관은 이날 포럼 주제강연에서 “대학발전의 요체인 교권의 자율성은 총장, 이사장, 교학 당국 모두가 정통성과 윤리성을 갖추어야 가능하며 대학은 어떤 일이 있어도 대학다워야 한다”고 말하고 미국의 명문 대학은 물론 연세대를 포함한 국내의 주요대학들이 거의 예외 없이 동문 중심 이사회 구성과 운영을 제도화하고 있는 배경과 이유를 설명해 참석 동문들에게 공감을 불러 일으켰다.

특히 연세대의 경우 기독교 종단 파송 이사가 단 2인이고 9인 이사 전원이 연세동문이기 때문에 굳이 외부인을 개방이사로 선임하는 절차를 늦추고 있다고 소개한 대목에선 모교 사정과 대비되는 상황에 모두가 할 말을 잃는 분위기였다.

모교의 경우 이사정원 13인중 9인을 조계종 승려로 못박아 당연직 이사로 정한 총장을 빼면 남은 이사 자리가 3인뿐으로 법정 개방이사 4분의1(4인)을 맞출 수 없는 형편이고 정련 이사



“능력있는 외부 인사 영입하라” 가두 홍보

지난 6월17일 동국포럼 이후 진행된 ‘동국대 재단 준법 정관 채택 촉구 동문·불자 10만인 서명운동 선언’이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확산되고 있다.

본회는 모교 재단의 ‘준법’ 정관 채택을 촉구하는 서명운동을 널리 알리기 위해 지난 6월21일부터 퇴계로 4가 대한극장앞에서 서명을 겸한 거리 홍보전을 벌이고 있다.

“이제 동국대학교도 국내의 석학,

전문경영인을 재단이사로 모셔야 합니다”라는 캐치프레이즈로 진행되고 있는 이 서명운동은 이메일, 휴대폰 전화, SNS를 통한 홍보와 각급 지부(회)단위 방문 서명 등의 방법으로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거리 홍보전은 정부종합청사, 국회, 주요 사찰등에서 광범위하게 전개될 예정이다.

한편 서명운동은 동문과 불자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장과 또 한분의 스님은 설립자측이 말할 수 없는 개방이사 자격으로 이사회에 진출해 있는 위법한 상황인데도 모든 이사를 조계종에서 추천하는 정관개정을 시도했었다.

동창회측 개정시안은 승려이사의 정수를 일단 7인으로 줄이고 개방이사 자격 기준과 선출절차를 명시하는 등의 법이 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한편 동문을 포함한 능력 있는 외부인에게 이사회 문호를 개방해 재단운영과 대학경영에 전환점을 마련하되 현재의

위법 상태를 감안해 단계적으로 시정해 나간다는 입장을 반영했다.

한편 5월31일 이사회 표결과 6월17일 ‘10만인 서명 선언’ 이후 총동창회와 재단, 종단, 불교 관련 여러 사이트에는 동문과 불자, 일반인들까지 일부 스님들의 ‘욕심’과 ‘무책임’을 비판하고 모교의 위상추락을 개탄하면서 변화를 촉구하는 여론이 댓글 형태로 봇물 쏟아지듯 이어지고 있다.

〈관련기사 4면〉

재단 '준법' 정관 촉구 10만인 서명운동 선언문

학교법인 동국대학교(재단) 재가이사 선임을 둘러싼 자승 조계종 총무원장·정련 재단이사장 측과 총동창회 간의 갈등은 이제 25만 동창회원을 비롯한 동국가족은 물론 한국 불교계 1천만 불자 모두에게 관심사로 떠올랐다.

그 결말이 작게는 107년 역사를 쌓은 동국대학교의 장래를 좌우하고, 크게는 한국 불교의 내일을 가늠하는 시금석이 되리라는 것이 분명해졌기 때문이다.

상황은 복잡해 보이지만 내용은 단순하고 결론도 자명하다.

법을 지킬 것이냐 어길 것이냐, 과거로 뒷걸음 칠 것이냐 미래로 나아갈 것이냐, 서로 손을 맞잡아 화합하고 단결할 것이냐, 계속 손가락질하며 분열하고 대립할 것이냐의 선택이다.

지난해 9월 재가이사 1인의 임기 만료후 지난 5월 말 정관 개정안 이사회 표결까지 10개월 가까운 기간에 조계종 총무원장·재단이사장 측이 집요하게 고집해 온 불법·부당한 업무처리 시도와 종교지도자 또는 사학경영 참여자로서는 걸맞지 않는 여러 행태들은 동국가족 모두에게 마음의 상처였고 이제 불교계 전체로부터 회의의 시각을 불러오기에 이르렀다.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다. 동국대 재단의 현재 상황이 1천 7백년 전통을 이어 온 한국불교 대표 조계종단 내부의 수준과 실상을 보여주는 벌거벗은 모습 아닌가.

세속에서라면 몰상식의 본보기로 매도되고 배척되었을 초법적 사고와 독선적 행태를 고집하려는 조계종 총무원장·재단이사장 측을 보면서 우리는 모교의 현재를 돌아보는데서 나아가 불교의 미래를 걱정한다.

더 이상은 안된다. 시대착오의 부조리를 사회가 계속 눈감고 방치하리라는 것은 착각이다.

동문과 불자들부터 눈을 떠서 바로 보고, 알고, 꾸밈없이 진실과 진심을 말해야 한다. 엄중하게 항의하고 참회와 시정을 요구해 변화를 일으켜야 한다.

그래야 스님들이 살고, 총무원이 살고, 학교가 살고, 불교가 산다.

우리는 그 출발점이 동국대 재단이사회의 법에 맞는 재구성이 라고 보고 이에 선언한다.

1. 설립자측이 말할 수 없는 개방이사 2명까지 포함해 13명 이사 정원의 2/3가 넘는 9명을 조계종 스님들로 채운 것으로도 모자라 모든 이사를 조계종 단에서 추천하려는 재단 정관 개정 시도는 대한민국 국법질서와 사회상식에 대한 도전이다.

2. 동국대 재단 정관은 대한민국의 헌법정신, 사학법을 비롯한 모든 관련 법령의 입법취지와 명문 규정에 온전하게 합치하도록 전면 개정되어 우리 사회에서 본보기가 되어야 한다.

3. 능력있는 외부인사가 학교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명문 규정을 통해 이사회 문호를 개방하고 '조계종 스님 이사회 독점 체제'를 철폐하는 것만이 동국대가 발전하는 길이다.

4. 우리는 '준법 정관' 채택으로 모교발전의 전환점이 마련될 때까지 10만인 서명운동을 비롯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조계종 총무원장·재단이사장 측의 변화를 촉구할 것이며 여기에는 위법하게 선출된 정련 이사장 등 현 개방이사의 자격과 권한행사 유효 여부를 확인하는 법적 구제절차도 당연히 포함될 것이다.

5. '준법 정관' 안은 6월중 모교에서 모든 이해관계자가 참석하는 공개토론회를 통해 마련하되 토론회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총동창회는 자체 안을 재단 이사회에 상정할 것이다.

우리 동문과 불자들은 해방후 '불교정화'를 거쳐 오늘에 이르는 동안 어려운 시대상황에서 한국 불교의 전통을 지켜온 많은 선지식과 고승대덕들의 공덕에 무한한 존경을 표한다.

그와 동시에 '종교자유'라는 이름으로 관용되었거나 은폐·방치되어 온 일부 스님들의 일탈과 방종 등 사회적 해악에 대해서도 걱정하는 마음으로 주시한다.

그들의 양식 회복을 기다리지 만 사회의 대응이 필요하다면 언제라도 앞장서 모교 발전의 걸림돌을 제거하고 한국 불교의 바른 전통을 확인하는 것이 모교사랑이자 불교인의 도리라고 믿으며 세계의 모든 동문 불자들에게 조계종단의 '자정과 쇄신' 촉구에 동참해 줄것을 요청한다.

2013년 6월 17일

동국대학교총동창회
재단정관개정 특별위원회

“아니, 이럴수가...”

동국대학교 재단 '준법' 정관 채택 촉구 동문-불자 10만인 서명운동

“동국대학교 재단이사 13인중 9인이 스님이라는 사실을 알고계신가요?
그런데도 100%를 다 차지할 수 있게 정관을 고치신다고요?!
이제는 동국대학교도 유능한 동문, 국내외 석학, 전문경영인을 이사로 선임합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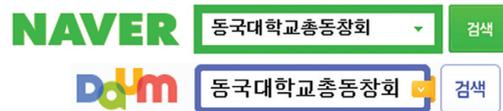
“서명에 동참하기”

<http://www.dongguk.or.kr/signature/list.html>

- 학교법인 이사회는 학교경영의 최고 의사 결정기구입니다.
- 동국대학교 이사회는 지금까지 2/3이상이 승려이사입니다. 즉, 13인의 이사 중 9인이 승려입니다. 그 외 4인중 1인은 법인이 선출한 당연직인 총장입니다.
- 모교 재단 정관의 문제점은 조계종에서 모든 임원을 추천하고, 개방이사까지 참여시켜 100%를 스님이나 조계종 추천인사로 이사회를 구성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현재 승려 2인이 개방이사로 들어가 있습니다.)
- 승려이사는 동국대학교의 건학이념을 구현할 수 있는 숫자로 축소(사립학교법상 친족범위내 4인)하고 그 외 임원은 문호를 개방하여 학교를 명문으로 만들 수 있는 유능하신 동문, 국내외 석학, 전문경영인 등이 선임되어야 합니다.
- 우리 뜻을 하나로 모으는 10만인 서명운동에 동참합시다.
- 이 취지에 공감하시는 동문과 불자들께서는 서명으로 그 뜻을 확인해주시고, 주변 지인들에게도 널리 알리어 함께 서명을 받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 궁금한 사항은 동국대학교 총동창회 홈페이지(www.dongguk.or.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서명은 우편이나 팩스(02-733-3992)로 보내주셔도 됩니다.

| 서명운동 온라인 참여 방법 |

① 네이버, 다음 “동국대학교총동창회” 검색



② 홈페이지 왼쪽 상담 배너 클릭



③ 서명에 동참하기

▶ 동문뿐 아니라 “가족, 친지와 친구”분들도 서명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재단이사 승려 9 · 총장 1인 · 재가자 3인

법으로 개방이사 4인 - 교육이사 5인 두어

학교법인 동국대학교(재단)의 임원진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을까? 동문을 비롯한 교수·직원, 재학생 등 학내외 구성원들이 잘 모르고 있거나, 알고 있더라도 특별한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이 때문에 재단이사회 정관에 반하여 선임되고 학교경영이 자칫 종단의 독주 경영까지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재단 정관에 따르면 임원수는 이사 13인, 감사 3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 중에 승려는 이사가 9인, 감사가 2인이다. 승려이사와 감사는 조계종 종립학교관리위원회(종관위)의 2배수 추천과 종회의 동의를 받아 재단이사회에 상정하여 1인을 선임하는 절차를 밟고 있다.

이사가운데 개방이사를 4인, 교육이사를 5인을 두고 있다. 개방이사는 개방이사추천위원회에서 2배수 추천하여 선임하는데 정련스님 호성스님과 안채란 이연택 이사가 개방이사에 속한다. 정관 개정안과 종단의 재가이사 추천 반대의 근거는 정관에 따라 승려이사는 종단 추천을 거치도록 되어 있고, 개방이사는 설립자 측이 참여해

서는 안된다는데 있다. 현재 재단 이사진 구성과정을 보면 이러한 원칙과 상식에 반하고 있다. 이를 위해 종관위는 종단에서 재가이사까지 추천할 수 있는 정관개정안을 내놓았으나 지난 5월31일 제277회 이사회에서 부결됐다. 현재 재단이사회는 허천택 이사 후 임은 정해지지 않아 12인이다.



이사장 정련스님



이사 영담스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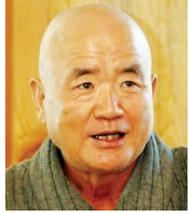
이사 성타스님



이사 일면스님



이사 명신스님



이사 삼보스님



이사 심경스님



이사 호성스님



이사 미산스님



이사 김희욱



이사 안채란



이사 이연택

모교 재단이사 구성현황

성명(본명)	현직	임기	비고
정련스님	동국대학교 이사장 前 조계종 포교원 원장	2011.03.12- 2015.03.11	교육이사 개방이사
영담스님	석왕사 주지 前 불교방송 이사장	2011.12.04- 2015.12.03	교육이사
성타스님	불국사 주지 前 조계종 포교원 원장	2011.12.20- 2015.12.19	
일면스님	불암사 회주 생명나눔실천본부 이사장	2011.12.20- 2015.12.19	
명신스님	보현사 주지	2011.11.04- 2015.11.03	
삼보스님	법흥사 주지	2011.12.20- 2015.12.19	
심경스님	조계종 총무원 사서실장 반야사 주지	2011.12.04- 2015.12.03	
호성스님	고운사 주지	2011.02.17- 2015.02.16	개방이사
미산스님	중앙승가대 교수 前 중앙승가대 총장	2011.12.04- 2015.12.03	교육이사
김희욱	동국대학교 총장 前 헌법재판관	2011.12.04- 2015.12.03	
안채란	영석학원 설립자 재단불교사상연구회 이사장	2011.12.04- 2015.12.03	교육이사 개방이사
이연택	동국대학교 총동창회장 前 총무처·노동부 장관 前 대한체육회장	2012.03.21- 2016.03.20	개방이사

재가이사 종단추천 정관안 부결

찬성 7 : 반대 4, 정족수 2표 부족

지난 5월31일 열린 제277회 모교 재단이사회는 조계종 승려를 대상으로 했던 조계종 종립학교관리위원회(종관위)의 이사 추천 절차를 재가자까지 포함한 모든 이사와 감사로 확대하는 개정안을 상정했으나 표결 결과 7대4로 부결됐다. 일관되게 반대 입장을 고수해온 총

동창회장 이연택이사와 동문 출신 사학경영자 안채란 이사 외에 적어도 2인의 승려이사가 반대표를 던져 정관 변경 의결정족수인 9표에서 2표가 모자란 결과로 분석되어 재단, 종단 내부의 양식회복 가능성에 한 가닥 기대를 낳았다.

정관개정안 반대표 이사는?

모교 재단 이사회에서 정관 '개약' 안에 반대표를 던진 승려이사 두 분은 누굴까.

비상식으로 어어져 온 정관개정 무리수를 좌절시킨 승려조직내 한가닥 양심에 동문사회와 불교계는 "그나마의 위안"을 얻고 있다.

이날 이사회에는 재적 12인의 이사 중 불참한 승려이사 1명을 빼고 승려이사 8인, 총장, 재가 이사 2인이 참석했다. 명백하게 반대의사를 밝혀 온

이연택, 안채란 2인 재가이사를 제외하면 승려이사 2인이 반대표를 던졌다는 계산이다.

불참한 스님까지 포함해 9인 스님 이사의 면면을 놓고 과연 누군지 설왕설래하는 양상이다.

한 동문은 "동기가 어떻든 모교에 큰 위기를 불러 올 수도 있는 상황을 막아 준 용기 있는 결단에 25만 동문은 감사와 지지를 보내야할 것"이라고 의미를 평가했다.

법률자문단 1차 회의



김동정 고문

본회는 모교 재단의 '준법' 정관과 관련한 법률적 자문을 받기 위해 법률자문단을 구성하고 지난 6월 14일 첫 회의를 열었다. 본회 김동정(53/57법학, 변호사) 고문을 비롯 법조계 동문 10명이 참석한 이날 회의에서 동문 법조인들은 "모교 발전을 위해서는 재단의 역할이 크다"는데 공감하고

"사명감을 갖고 법률적 검토에 협력해 나가자"고 다짐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모교 재단의 정관 개정안과 현 이사진 구성 현황을 듣고 문제점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눈 뒤 1차로 검토 초안을 만들어 차기 모임에서 심도있는 토론을 갖기로 했다.

법률자문단은 김동정 고문을 비롯 윤여달(64/68법학, 변호사) 이은기(73/77법학, 변호사, 서강대 로스쿨 교수) 문한성(79/83법학, 변호사) 김창규(80/84법학, 변호사) 이용복(80/84변호사) 김강균(96/03경영, 변호사) 등으로 지난 6월 1일 구성됐다.

현행 규정	개정안
제24조(임원의 선임방법) ③ 제2항의 조계종 재적승려 이사 및 감사는 조계종단의 2배수 이상 추천을 받아 선임한다. 다만 법정기일 내에 후보를 추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선임한다.<개정 00.7.4>	제24조(임원의 선임방법) ③ 이사 및 감사는 조계종단의 2배수 이상 추천을 받아 선임한다.(대학의 장, 제22조 제2항에 의한 개방이사, 제25조 제5항에 의한 감사 1인은 제외) 다만 법정기일 내에 후보를 추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선임한다.

■ 개정이유 : 임원 선임방법을 종립학교관리법과 일치하도록 수정

불교계 언론 뉴스보고 쏟아진 ‘닷컴’ 반응

“스님이사 대오 각성있어야 동국대 발전”

지난 5월31일부터 6월20일까지 동국대 정관 개정안 부결, 동국대 ‘준법’ 정관 채택 촉구 10만인 서명운동, 조계종 총림학교관리위원회 회의 등의 뉴스가 불교계 언론을 통해 보도된 뒤 조계종단과 스님들의 반성, 회개를 촉구하는 여론이 댓글등을 통해 쏟아지고 있다. 여론은 학교경영은 전문가 집단에 맡기고 스님들은 수행에 전념하는 것이 맞고 총림학교라는 이유로 비전문가인 스님들이 학교운명을 마음대로 하겠다는 발상은 부처님이 그렇게 경계했던 ‘욕심’과 ‘집착’의 실증이라는데 모아졌다.

동문1 06.20

스님들 늘 하시는 말씀대로 그냥 내려 놓으십시오. 동국대학교를 뜻 있는 분들이, 학교를 사랑하는 분들이 신나게 경영하여 3대 사학에 복귀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십시오. 해외에 있는 동문이 무릎 꿇고 빕니다.

동문 06.18

107년 동안이나 출가자들이 이사회

를 장악했는데 그 결과가 대학 위상의 지속적인 추락이라면 일괄 사퇴하는 것이 옳은 일 아닌가요?

가다가 06.18

스님들, 이제 욕심을 버리시길! 투자는 없고 감투만 바라는 승려들이 불교와 동국대 발전을 막고 있다. 이제 승려들은 욕심을 버리고 불교와 동국대 발전에 매진해야 한다. 교육

행정은 전문가에 맡겨야 한다.

드레곤 06.18

인재불사라고 불교계 및 조계종은 반성해야 합니다. 100년 이상된 학교를 이렇게 만들어 놓다니.. 승려이사들을 1/2이상 줄여야 합니다. 감투자리가 아니고 책임감을 갖고 대학발전을 이뤄나갈 분들이 이사로 나서야 합니다.

공대동문 06.19

총동창회에서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이번일은 물러서서는 안됩니다. 10만 서명이 아니라 조계종 앞에서 총궐기 대회라도 해야 합니다.

거참 06.18

점령군 행세하는 승려들의 대오각성

이 없으면 동국대는 발전할 수가 없다. 승려들 종파싸움 때문에 동국대가 입은 피해는 어마어마하다.

동창회 06.18

결핍하면 승가모독, 종권도전? 바른 말을 해주어도 알아듣지 못하니 우리 불교 앞날이 칠후 같습니다.

하하 2013-06-18

방하차 동국대가 불쌍하다. 대화가 통하지 않는 벽창호들과 마주해야 한다니.

일말의 희망 05.31

그나마 스님 중 한 분 이상이 반대표를 던졌다는 것이 조계종에 아직 양심적인 스님과 일말의 희망이 남아 있다는 증거이군요.

교육법인은 ‘공공재’ 이다

불자범부 06.04

동국대학교는 1906년 명진학교에서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당시의 명진학교는 동대문 창신초등학교 부근에 있던 원흥사 한칸을 쓰던 아주 자그마한 신식 승려 교육기관의 모태에 불과했습니다. 여러차례 폐교와 개교를 거듭하며 불교전수학교, 중앙학림, 중앙불교전문학교 등을 거치기는 했지만, 여전히 정원수는 몇십명에 불과한 작은 학교였습니다. 그나마도 승려교육기관의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못합니다.

대학으로서의 위상과 틀을 갖춘 체제는 해화전문에 와서야 비로소 이뤄집니다. 그러나 해화전문은 매우 짧은 역사만 간직한채 해방직전 사라지고, 해방후 혼란한 와중에 동국대학이 설립되고 백성욱 박사라는 걸출한 인물의 영향력으로 종합대학교 승격, 재단 법인의 자산 확충을 이뤄냅니다. 하지만, 그것도 양적으로 보면 매우 미약한 단초에 불과한 것이었습니다.

1949년 재단법인 조계학원을 재단법인 東國學院으로 개칭하고 30 분사 사찰임야 16,310 정보를 불교종단 중앙불교교무원으로부터 기부 받은 것이 그나마 동국대학교를 설립한 근거가 됐습니다. 하지만 종단의 기여는 여기까지가 거의 모든 것입니다. 설립 재산은 물론 아직도 거의 동국대학교가 가진 교육용 재산으로 아직도 그대로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동안 많은 교육시설과 대학의 확장은 무엇으로 이뤄진 것일까요? 동국대학교의 설립과 발전은 종단의 선각자 스님들의 인재불사에 대한 일념과 정부의 지원, 그리고 동문들이 수십년간 학교에 납부했던 등록금과 기성회비가 근간이었습니다.

종단이 설립했다고 해서 종단만의 것이라는 논리는 수많은 인과관계를 도외시한 주장입니다. 연세대나 고려

대, 이화여대의 이사회는 그런 이유로 많은 사회명망가와 동문들을 이사로 영입합니다.

한국불교를 대표하는 조계종은 동국대학교를 설립하고 후원해 왔습니다. 마땅히 학생들과 동문, 그리고 직원과 교수를 비롯한 많은 동국가족들의 존경의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몇몇의 스님들로 대표되는 종단의 정치상황에 맞추어 있을만 하면 되풀이되는 재단 소유 논쟁은 이제 불식돼야 합니다.

교육법인은 설립과 동시에 설립자

동국대 전신 명진 학교는 정원 몇 십명 승려교육기관 현 동국대는 수십년간 동문등록금·기부금으로 성장 주요대학 영광 되찾을지, 현상 유지할지 갈림길에

의 것이 아닙니다. 공공성을 지닌 공공재의 성격을 지닙니다. 그러한 이유로 교육법인은 해산되면 설립자의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국고에 귀속됩니다. 마치 사립학교라 하여 자신들의 소유인양 주장하는 일부 몰지각한 사립학교 설립자들의 행태가 비판받는 이유는 교육법인을 소유관계로 잘못 인식하는 적박한 인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스님 9인 법인 해산 가능

동국대학교는 한국불교에 의해 태어났지만, 이제 종단의 몇몇 스님들만의 것이 아닙니다. 교수와 학생, 동문, 더 나아가 대한민국의 많은 뜻 있는 불자들 모두의 것입니다.

현재 동국대학교의 법인 이사회 구성은 이사 정수 13인, 그중 인을 종단이 스님으로 추천합니다. 9인의 스님이사는 법인을 해산할 3분의 2를 초과하는 숫자입니다. 연세대나 고려대의 경우 설립자와 관련된 이사의 수는 과반을 넘지 않습니다. 동국대

법인이사회는 스님이사 9명도 모자라 모든 이사를 종단 추천으로 하라고 합니다. 사립학교법은 설립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이사의 수를 제한합니다. 친족의 경우 더욱 엄격합니다. 그 이유는 설립자의 전횡을 견제하고자 함입니다. 개방이사가 그런 제도입니다. 그런데 종단은 개방이사도 종단의 추천을 받으라 합니다. 그렇다면 종단의 주장대로 모든 동국대 법인이사가 종단추천을 받아 임명된다면 동국대의 발전은 이뤄질 수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오히려 종단의

여러 정치적 갈등의 대리전이 벌어지는 종단정치의 판으로 전락할까요? 상식적으로 봤을때 결과는 매우 명약관화합니다. 적어도 지금보다 나아지기 보다는 더욱 안좋아지리라는 것입니다. 몇가지 사례를 통해 이야기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동국대의 기틀이 다져진 때는 백성욱 박사가 총장으로 재직할 시절인 50년에서 60년대 초반입니다. 그리고 비구·대처 갈등을 통해 통합종단이 들어서기 전인 김법린 박사 총장 재임시절입니다. 그이후는 어떠했습니까. 통합종단이 들어선 이후 봉은사 토지매각을 둘러싼 종단의 갈등과 대학의 분규는 동국대 정체의 가장 큰 원인이었습니다.

70년대는 의과대학의 설립, 지방분교 설립, 근대화와 산업화에 필요한 인재 육성을 위한 공과대 육성이 화두였던 때입니다. 이 과정에서 동국대학교는 종단의 분규와 재단분규로 인하여 거둬지는 관선이사 파견과 재단의 파행으로 아무일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놓입니다. 사회의 평가는 3대사

학의 전통을 가진 대학에서 2류, 3류 대학으로 추락합니다.

80년대 후반 종단과 재단 내부의 알력으로 빚어진 총장 이사장 동시구속이라는 최악의 사태, 2007년 벌어진 신정아 사건은 재단내의 스님들간의 암투가 빚어낸 암종과도 같은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에 있어 종단은 어떤 수습과 대책을 내놓았습니까. 최소한 참회나 최소한의 투자라도 이뤄졌나요? 25만 동문들이 걱정하는 것은 바로 그러한 일입니다. 한국불교를 대표하는 많은 선지식들께서는 이런 역사적 맥락을 바로 보셔야 합니다.

종단·재단 분규 위상 추락

동국대학교는 이미 종단만의 것이 아닙니다. 동문들만의 것도, 학생들만의 것도 아닙니다. 이미 대한민국 모두의 것입니다. 사유물이 아니라 공공성을 지닌 대학교입니다. 더 이상 종단의 전유물만양 사고하고 이용하지 말아주셨으면 합니다. 물론 이러한 논의가 얼마나 진정성있게 받아들여질지는 의문입니다. 이런 글을 쓰는 이유는 최소한의 양식을 지닌 스님들과 선지식들의 눈밝은 판단을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적어도 몇몇 권승과 사관승으로 일컬어지는 이들의 말장난과 이전투구에 대학이 휘둘리는 불행한 일은 없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동국대학교는 기로에 서있습니다. 이제 정말 주요대학으로 발돋움해 옛 영광을 되살릴 것인가 아니면 그저 그런 대학을 남아 있을 것인가 하는 갈림길에 서있습니다.

종단은 제발 지원이 아니라면 차라리 동국대학교가 알아서 자기 갈길을 갈 수 있도록 방임이라도 하는 것이 낫습니다. 전문성도 없으면서 온갖 간섭과 정치놀음으로 허송세월을 계속한다면 이제 동국대학교가 갈곳은 아무데도 없습니다.

“학문 융·복합 - 선택과 집중에 대학 미래 있다”

동국포럼 ‘21세기 대학발전 전략’ 윤형섭 전 교육부장관 강연



윤형섭 전 장관

금년도 첫 동국포럼이 전 교육부장관이자 연세대 재단이사인 윤형섭 박사를 초청해 지난 6월 17일 (월) 오후6시30분 서울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21세기 대학발전 전략 모색’을 주제로 열렸다.

230여명이 참석한 이날 포럼에서 윤 박사는 주제 강연을 통해 21세기 특징으로 ‘변화와 행복’을 꼽으며 “행복을 희망한다면 더욱 폭넓고 깊은 사고를 해야 한다. 변하지 않는 것은 세상에 없지만 우리 스스로 주체적으로 변화에 나설 때 그것은 혁신”이라고 말하고 “세상을 행복하게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대학부터 변화해야 한다”고 말씀을 열었다.

대학발전 열쇠는 ‘선택과 집중’

그는 이를 위해서는 “지금 같이 모든 대학들이 서울대·카이스트 등을 바라보며 따라간다면 절대 희망이 없다. 대학이 발전하려면 서울대 옆에 서야지 뒤에 서면 안 된다”고 지적하고 “동국대가 갖고 있는 선택과 집중할 자산을 찾아 키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학문의 융복합은 피할 수 없는 시대적 가치이며, 지금까지의 커리큘럼과 교육방법으로는 절대 일류가 될 수 없다”며 “교수가 연구·강의에 몰두할 수 있게 한다면 동국대가 최고가 못 될 이유가 없다”고 피력했다.

그는 이어 “대학발전에는 문화적 요건이 중요하며, 이를 갖추기 위해서는 대학 자율권이 보장돼야 한다”면서 “교권행사는 대학이 재단 앞에 얼마나 자율권 갖고 있는가가 많은 사립

대학의 문제로서 대학 자율은 모든 구성원이 재단으로부터의 교권수호를 얼마나 중요시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대학은 어떤 일이 있어도 누가 생각해도 대학다워야 한다”면서 “정통성이 바로 서야 대학의 리더십이 옹골 있게 행사될 수 있다”며 “총장 이사장 교학 당국자 모두 그

동문들의 참여는 피할 수 없는 대세임을 우회적으로 뒷받침했다.

강연이 끝난뒤 있는 질의·응답시간에는 조충미(81교육)동문이 “동국대와 연세대가 비슷한 시기에 개교하고서도 서열 격차가 벌어진 현실에 자괴감을 느낀다”며 “종교재단인 연세대가 민주적인 이사회를 구성한 사례와 연세대 총장선출 시스템에 대해 알려



행복한 세상으로 가는 첫 걸음은 ‘대학의 변화’

모든 대학 서울대 따라가면 희망 없다

일류 교수가 연구·강의 몰두할 여건부터

연대 설립자 일가 이사진 철수... 존경스런 용단

대학에 윤리를 갖춘 도덕성과 정당성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미 상위 20개대 동문 참여 높아

그는 아울러 “미국 상위 20개대 대학들의 운영을 보면 1, 2위인 하버드나 예일대 등은 동문 참여가 100%이고 나머지 대학들도 동문 참여도가 높을수록 순위가 높았다. 연세대 이사진도 사실상 동문들이 100%이다”면서 본회가 주장하고 있는 준법 정관안에

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윤 박사는 “현재의 연세대 재단이 구성되기까지 60년 가까이 변화가 거듭됐다. 1957년 세브란스와 연희전문학교가 합칠 때 이사수가 27명이었으나 현재는 이사 9명에 감사 2인이다. 앞으로 개방이사와 추천감사를 수용하면 이사 12명, 감사 3명으로 구성될 것이다”라고 전제하고 “최근 개신교 4개 교파에서 파송했던 목사 이사 4인을 2인으로 줄이고, 동문 파

송이사 2명, 총장 1인, 사회유지 4명으로 구성된 상태인데 실은 모두가 연세대 동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와 함께 “연세대 설립자였던 언더우드 일가가 4대에 걸쳐서 봉사했던 대학을 버리고 미국으로 돌아간 것은 한국 사립대학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감동적인 일이었다”고 소개하고 “언더우드 가문의 후손인 원한섭 씨를 최근 이사로 선임한 것은 이런 배경에서였다”고 말했다.

연대 총장 선출 4단계 검증

그는 연세대 총장 선출 제도에 대해서는 “그전까지는 직선제였는데 여러 부작용때문에 교수평의회(교수협의회)에서 재단이사회에 직선제 폐지를 주장해와 2011년 변경됐다”면서 “그러나 이사회에서는 직선제는 폐지하되 절차는 살리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여 총장을 선출하게 되었다”면서 선출 과정을 소개했다.

이에 따르면 “15인의 총장물색위원회 두어 1차로 총장희망자를 받는 한편, 외국 등지에서 유능한 인사도 검색해 추가하도록 했다”면서 “자천타천 총장후보자 외에 별도로 물색해내 결격사유자를 배제하고 15명 후보를 심사평가위원회(16명)로 넘기면 심사평가위원회에서 3~5인을 이사회로 추천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후보자수가 3인에서 미달할 경우 남은 정원은 이사회가 일방적으로 추천해 3인 이상 채우도록 했으며, 3인 이상의 후보를 면접, 정견발표 등을 거쳐 이사회에서 투표해 총장을 결정하는 절차를 밟고 있다”면서 “이사회가 뽑은 총장을 공표하면서 전 교수의 인준투표에 넘겨 마지막 인준행사를 하도록 정했는데 현재로서는 상당히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동문이 뭉쳐야 학교가 바뀐다

“모교발전과 동문단합은 같은 말 다른 표현”

졸업한지 20여년이 지났지만 언론에 모교의 소식이라도 나오면 관심 갖고 눈길을 보내게 된다. 학창시절 동대신문사와 학생회 활동을 경험하면서 '학원 자주화 투쟁', '민족동국 중흥운동'을 내세우며 밤새우며 고민했던 시절이 떠올려진다.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가진 모교이지만 다른 대학들이 변화와 발전을 거듭할 때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는 답답함이 앞선다. 모교의 발전을 위해서는 재단전입금 확충, 재단 이사회의 투명한 운영, 조계종단의 책임감 있는 역할 등이 선행돼야 한다. 20년 전에도 주장했던 것들인데 오늘날까지 미완의 숙제로 남아있으니 달라진 게 별로 없구나하는 생각에 씁쓸하기까지 하다.

물론 모교는 계속 발전하고 있고, 졸업생들이 사회 각 분야에서 자기 역할을 다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도 멀었다. 대학평가의 순위가 모교의 현실을 말해주고 취업률과 기업의 평판이 동국의 현주소를 말해주는 세상이다.

동문의 입장에서 모교를 주도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종단과 재단, 총장의 책임을 거론하지 않을 수 없다.

지위와 직책에는 역할과 책임이 따라야 한다. 100년 전에 동국을 세운 선각자 스님들의 뜻이 어디에 있었는지 종단과 재단의 스님들은 초심으로 되돌아보아야 할 것이다. 현재 동국대는 학생들의 등록금과 동문들의 기부금에 의존해 운영되고 있는 게 현실 아닌가.

안타깝기 그지 없지만 남 탓만 할 수 없는 게 동문일 입장이다.

학교는 학생, 교수, 교직원, 동문, 학부모가 주인이다. 각자가 주인의식을 가지고 참여하고 봉사, 헌신하지 않는다면 모교의 발전은 요원하다.

운명은 스스로 개척하는 자의 것이다. 동국의 현실도 마찬가지다. 우리 25만 동문들이 나서서 동국의 운명을 개척해야 한다. 어느 누구도 대신해주지 않는다.

그런 면에서 총동창회를 중심으로 더욱 똘똘 뭉쳐야 한다. 각자의 이해에 따라 동창회가 갈라서서는 안된다. 작은 차이를 인정하고 모교발전을 위해 동창회의 역할에 힘을 모아야 한다. 최근 종단과 재단, 동창회가 정관개정과 재가이사 선임을 놓고 의견 대립을 보이고 있다. 학교발

전을 위한 생각이야 다르지 않겠지만 방법에 있어 다른 것은 인정할 수 있다. 하지만 종단과 재단, 총장은 학교발전이란 포장속에 각자의 욕심이 있지는 않은지 되돌아보아야 한다.

국적은 바꿀수 있어도 학적은 바꿀수 없다. 모교의 평판과 발전은 평생 우리 동문들을 따라 다닌다. 그렇게 때문에 모교발전과 우리 동문의 발전은 한몸이고 운명 공동체이다.

재단과 학교가 잘못 할때는 쓴소리도 서슴없어야 한다. 지금이 그런 때이다.

재단이사회 구성, 학교 평의회 운영과 관련된 재단과 학교의 방향은 한참 잘못돼 있다고 본다. 학교를 구성하는 한축인 동창회를 무시하고 일방통행식 행보는 멈춰야 한다. 누구를 위한 행보인지 되돌아보길 바란다.

종립학교의 정체성 혼돈, 재단의 역할 부재, 교수, 학생, 교직원들의 위상변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할 수도 있겠지만 우선은 동국에 대한 각 주체들의 주인의식이 우선이다. 설립자가 1인인 사립학교와 달리 동국대는 암울한 일제 강점기에

개인 스님들의 淨財가 모여 민족사학으로 출발했다. 모두가 주인이다 보니 의사결정 과정도 늦고 책임감 있게 학교를 운영해 갈 주체도 혼신 이 있을 수밖에 없었다. 그렇지만 종단, 재단, 교수, 학생, 교직원, 동문이 대학의 주체로 자기역할에 충실한다면 1인 오너 대학들의 부작용을 넘어 동국은 발전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사회 각계에 흩어져 있는 동문들을 동창회가 하나로 묶어낸다면 시너지는 대단할 것이다. 그런 저력이 있는게 불교의 학풍을 갖는 우리 동문들의 힘이다.

동문들은 모교에 대한 주인의식을 갖고 현재 종단과 재단, 총장의 행보를 꼼꼼히 따져보아야 한다. 우리 동문들의 관심과 참여가 곧 동국 발전의 지름길을 잇지말자.



남철우 (88/94농경) 본보 홍보위원, KBS 근무.

대학의 위기 - 일간지 칼럼 전제

마이클 샌델과 edX

조선일보 '최재천의 자연과 문화'

“한국대학교 홍길동 교수는 하루 평균 3시간씩 강의한다. 사실 강의라고 해봐야 MIT(매사추세츠공대) 스티븐스 교수의 온라인 원격 강의를 화상으로 재현해 학생들에게 보여주고, 혹 질문이 있으면 대답해주는 것이 전부다.” 현재 기초과학연구원 원장인 서울대 물리천문학부 오세정 교수가 이인식의 '미래신문'이라는 책에서 묘사한 미래 대학의 수업 광경이다.

1997년 경영학의 대가 피터 드러커는 2020년대에는 대부분 대학에서 캠퍼스가 사라질 것이라고 예언했다. 인터넷을 이용한 원격 강의를 보편화하면서 고비용의 캠퍼스 경영은 점차 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시카고대 사회학과 앤드루 애벗 석좌교수는 미래의 대학은 명성과 재력을 갖추고 양질의 교육 콘텐츠를 개발할 수 있는 소수의 명문 연구 중심 대학과 이런 대학들이 개발한 교육 콘텐츠를 활용해 취업 교육을 담당할 다수의 '대중 대학(Mass University)'으로 양분화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5월 2일자 미국의 교육 전문지 '고등교육신문(The Chronicle of Higher Education)'에는 산호세주립대학 철학과 교수들이 '정의란 무엇인가'와 '돈

으로 살 수 없는 것들'로 잘 알려진 하버드대 마이클 샌델 교수에게 보낸 공개서한이 실려 있다. 2012년 4월 MIT와 하버드대가 각각 3000만달러씩 투자해 만든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 edX를 대학 당국이 도입하려 하자, 샌델 교수의 강좌 'JusticeX'를 거부하며 그 이유를 조목조목 열거한 서한이다. 그들은 샌델 교수의 강의를 함께 시청한 후 학생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질문에나 답해주는 '고급 강사'로 전락할 수 없으며 교수와 학생 간 친밀한 접촉이 없는 인터넷 강좌는 결국 교육의 질을 떨어뜨릴 것이라고 주장했다.

2012년 1월 출간된 '10년 후 세상'에서 나는 앞으로 10년 안에 우리나라 대학들도 양극화의 갈림길에서 선택을 강요받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현재 우리나라 대학들의 수준을 냉정하게 평가할 때 자체적으로 세계적 수준의 콘텐츠를 개발할 수 있는 대학은 그리 많아 보이지 않는다. 그렇지만 '가지 않은 길'에 대한 회한이 두려워 영거주춤 미적거리는 대학은 살아남기 어려울 것이다.

최재천 이화여대 석좌교수·행동생태학 <2013.05.06>

매일경제 '매경춘추'

검은 파도가 순식간에 제방을 넘어 도시 전체를 삼켜버렸다. 2011년 3월 일본 동북 지역을 강타한 쓰나미는 대재앙 그 자체였다. 쓰나미 위력 앞에서 인간은 나약한 존재에 불과했다. 매 시간 전해지는 뉴스 속보를 보며 '어떻게 저럴 수 있나?'라는 탄식만 쏟아냈다.

2년여 기간이 흘렀지만 일본은 여전히 쓰나미의 상흔으로 신음중이다.

성격은 다르지만 또 다른 쓰나미가 한국 대학을 향해 덮쳐오고 있다. 그것도 7년 안에 한국 대학 3분의 1 이상을 초토화할 수 있는 위력과 속도로 말이다. 이 쓰나미의 진원은 급격한 학령인구 감소다. 현재 64만명인 고졸자는 2017년에 56만명으로 줄어든다. 그때의 대입정원(57만명)보다 고졸자가 1만명 부족해지는 것이다. 그리고 2020년에는 고졸자가 46만명으로 대입정원보다 무려 11만명 모자라게 된다.

고졸자의 대학진학률은 2009년 78%를 최고점으로 하강곡선을 그리더니 지난해는 71%까지 낮아졌다. 이런 추세라면 2020년까지 입학정원 2000명 규모의 대학 120여 개가 문을 닫을 수밖에 없다는 계산이 나온다. 가히 '대학 붕괴의 쓰나미'라 할 수 있다.

대학붕괴 쓰나미

대학이 붕괴되면 지역사회가 붕괴되고 마침내 국가에 위기가 닥칠 수 있다. 대학 붕괴 쓰나미에 대응할 종합대책들을 서둘러 마련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 우선 대학들이 스스로 구조개혁을 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대학을 정리할 경우 그 잔여재산을 전부 국고에 귀속하도록 되어 있는 관련법을 개정해야 한다. 한계 상황에 처해 있는 대학들이 스스로 정리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줘야 하는 것이다.

정부는 대학들의 통폐합을 유도하고, 대학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을 늘려야 한다. 대학들도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뼈를 깎는 노력을 해야 한다. 201개 4년제 대학들을 회원으로 둔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회장이 대학구조조정을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하면 회원대학들로부터 환영받지 못할 수 있다.

우리 속담에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도 못 막는다'는 말이 있다. 대학 붕괴의 쓰나미를 코앞에 두고 정부와 정치권 그리고 대학은 이 속담의 의미를 곰곰이 되새겨 봤으면 한다.

서거석 전북대 총장·대교협 회장 <2013.05.07>

회장임기 차기부터 3년씩... 년회비 3만원으로

32차 정기총회 예·결산안 등 원안대로 의결

본회 회장 등의 임원 임기가 차기 회장부터 2년에서 3년으로 바뀐다. 본회 제75차 정기이사회 및 제32차 정기총회가 '명문 동국, 하나되는 동국인'을 기치로 임원 등 2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3월21일 오후 6시30분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려 임원의 임기를 비롯 상임위원회 구성 인원 확대 등의 일부 회칙 개정안을 의결했다.

회칙 개정에 따라 임원 임기는 내년 1월부터 적용되며,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임기 변경안으로 새로 취임하는 회장이 짧은 임기에서 오는 동력 누수현상을 최소화 하고 동창회 사업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자는 취지로 상정되어 이사회와 총회의 동의를 받아 확정되었다.

전년도 감사보고 '적정 의견'

이날 이사회 안건으로는 △2012년도 회무 및 결산보고 △2013년도 사업계

있는 만큼 원안대로 통과시켜줄 것을 동의한다"고 발의해 임원 모두의 동의로 원안대로 의결됐다.

평생회비 50만원

제3호 의안인 회비조정안 심의는 박용재 사무총장의 배경설명이 있은뒤 상임이사 강진원(65/71경영)동문의 동의 발의로 년회비를 2만원에서 3만원으로 인상하는 안과 평생회회비를 50만원으로 정하는 안건을 원안 통과시켰다. 년회비 인상은 지난 1997년부터 2만원으로 책정되어 운영해왔으나 동창회보 제작비 및 우편료, 경상비 등의 인상요인에 따라 현실화하자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던 사항이다. 년회비는 다른 대학 동창회들도 대부분 3만원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와 함께 평생회비제를 활성화하기로 하고 금액을 50만원으로 확정했다.



▲ 정기이사회 및 총회가 지난 3월 21일 열려 일부 회칙개정안 등을 의결했다.

획 및 예산안 △회비조정안 △회칙 개정안 등이 상정되어 4개 안건 모두 만장일치로 의결되었다.

제1호 의안인 2012년도 회무 및 결산안은 심의에 앞서 본회 감사 이홍섭(80/84회계,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부대표)동문으로부터 "2012 회계연도의 결산수지사항을 중요성의 관점에서 적절하게 표시하고 있다"는 감사보고가 있었다. 이 감사는 감사보고에서 다만 △임원회비와 일반회원 년회비 증대 방안 강구 △서울교육청 현실태조사 지적에 따른 동국장학회와 총동창회의 회계를 명확히 구분하는 등은 개선되어야 할 사항으로 지적했다. 이어 진행된 안건 심의는 이사 최용봉(78/82식공)동문이 "회의자료 검토해본 결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해 줄것"을 동의하자 참석 임원 모두 박수로 의결했다.

제2호 의안인 2013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심의는 이사 박종규(73/77정외)동문이 "총동창회 활동이 과거에 비해 신뢰를 주고 역동적이며 미래지향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금년도 사업계획이나 예산도 그 취지에 맞춰져

상임위원 확대 등 회칙 변경

제4호 의안인 회칙변경안 심의는 △임원임기 조정(13조1항) △상임위원회 구성인원 확대(제19조1항) 외에도 △경주시에 직할동창회를 두는 근거(제3조) △상임위원회 담당분과 신설 및 폐지(제19조2항) △감사의 상임위원회 출석 근거(제19조4항) 등이 상정되어 부회장 홍성열(92/94불원)동문의 동의 발의에 따라 이견없이 원안 통과되었다.

현안문제 적극 대처 요구

정기이사회 폐회선언에 이어 곧바로 진행된 정기총회에서는 성원보고가 있은 뒤 의안 심의가 상정되었다. 안건이 상정되자 부회장 신윤표(61/65행정)동문이 "총회에 참석하신 회원 대부분이 앞서 열린 정기이사회에 참석하신 회원들이시고, 이사회에서 모두 의결을 마친 안건들이므로 별도 심의와 의결절차를 밟는다는 것은 의미가 없다"면서 4개안건 일괄 동의를 발의, 전원 박수로 수정없이 통과시켰다.

본회 이연택 회장, 새만금위원회 민간위원장 임명



이연택(56/60법학) 본회 회장이 지난 14일 새만금위원회 제3대 민간위원장으로 임명됐다.

새만금위원회는 새만금사업의 효율적 개발·관리 및 환경보전 등의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2009년 설치된 기구로 당연직(국무총리) 위원장과 민간위원장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이 회장은 30여년간 공직 경험을 바탕으로 한국 스포츠계 발전에도 크게 기여해오고 있고, 특히 풍부한 행정경험을 바탕으로 정·관계 등에 폭 넓은 인맥을 갖고 있다.

국무총리 행정조정실 심의관 등으로 근무했으며, 1980년 총리실 제1행정조정관 시절엔 1986 서울아시안게임과 1988 서울올림픽 유치지원단에서 활동했다.

청와대 행정수석비서관과 총무처·노동부 장관을 역임했고, 공직에서 물러난 뒤엔 국민체육진흥공단 이사장, 2002 한일월드컵 조직위 공동위원장, 대한체육회장, 대한올림픽조직위(KOC) 위원장, 2014 인천아시안게임 조직위원장 등으로 활동했다.

이날 기타사항에서는 송영인(63/67통계)동문이 회관건립 문제를, 이계홍(65/69국문)동문과 윤천영(59/66농학)동문이 학교법인 문제를, 신윤표

(61/65행정)동문이 대학평의원회 동문대표 참여를 각각 제기, 총동창회에서 적극 대처해줄 것을 건의했다.

3대 현안 소위원회 구성 활동

총동창회는 지난 3월21일의 정기총회 결의에 따라 '학교법인관련 소위원회' '동창회관 건립 소위원회' '대학평의원회 소위원회' 등 3대 현안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구체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동창회관 건립 소위원회

동창회관건립 소위원회가 본회에서 박동열(73/78행정) 김오현(76/80체교) 전종무(81/85미술) 위원, 박용재 사무총장과 모교에서 최응열 대외협력본부장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4월8일 오후 6시 모교 상록원 교직원식당에서 열렸다.

이 자리에서는 '재단·학교·동창회간 기본 합의서'에 명시된 내용 확인과 함께 구체적 협약 체결문제가 중점 논의되었다.

소위원회는 동창회관 건립문제가 총회 결의사항임을 상기시키면서 △합의서 2호 가항에 명기된 층수로 영상센터의 일정 공간 및 시설(1개층 5백평)을 영구무상으로 동국대학교 총동창회에 할양 △합의서 2호 가항의 "사정이 여의치 않을 경우 이에 상응하는 다른곳에 일정 공간과 시설 제공 △학교에 전달된 동창회관 건립기금의 활용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학교측과 협의해 조석한 시일내에 구체적 협약안을 마련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대학평의원회 소위원회

대학평의원회에 동창회 대표 참여를 논의하기 위한 소위원회가 김환배(68/72연공) 김진익(73/80경영)위원과 박용재 사무총장이 자리를 함께한 가운데 지난 4월15일 열렸다.

이날 소위원들은 "사립학교법과 학교법인 정관(제119조)에 명시된 '대학평의원회'에 동문은 동창회 대표성을 가진 자가 참여하는 것이 정당성을 갖는다"면서 "이를 학교당국에 공문을 보내 시정해나가자"고 입을 모았다.

학교법인관련 소위원회

학교법인 관련 소위원회가 이종주(58/62법학) 김영화(63/67경행) 문병호(68/72정외) 고용규(70/74정외) 정우식(88/93철학)위원과 박용재 사무총장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4월8일 사무처회의실에서 진행됐다.

이와 관련 회의는 △서명결과를 조계종, 학교법인 등 관련기관에 통보 △법인 정관과 사립학교법에 근거한 임원 구성 요구 △교육부에 정관 등의 유권해석 질의 △종단, 재단, 학교, 동창회, 재학생이 참여하는 대토론회 개최 △총립학교관리위원회 항의 문서에 회신형태의 '총동창회의 입장' 전달 △종단과의 대화창구 마련 △언론홍보를 통한 사회쟁점화 등의 대책들을 내놓았다.

정상영 고문 모교에 100억원 쾌척

“모교 발전에 힘 보탤으면”... 동문사회 모범 보여



본회 고문 정상영(57/61법학, (주)KCC 명예회장)동문이 모교 제2건학기금으로 사재 100억원을 지난 4월 25일 쾌척했다.

정 고문의 이번 기부는 개인이 낸

모교 기부금으로는 가장 큰 규모다. 정 고문은 1996년 학교발전기금 5억원을 기부한 것을 비롯해, 1999년 법과대 발전기금 3천만원, 2011년 제2건학기금으로 20억원 등 오랜기간 동안 꾸준히 모교에 관심을 가지고 후원을 해왔다.

정 고문은 이번 모교 기부뿐만 아니라 총동창회 장학기금 등으로도 최근 몇년 사이에 9억1천만원을 출연했다.

2011년 12월에는 본회를 통해 국가고시 합격생 및 준비생들을 한데 모아 격려와 함께 격려금 1억원을 전달했다. 이어 2012년 3월과 12월에도 두 차례에 걸쳐 국가고시에 합격해 공직에 진출하는 후배들을 격려하기 위해 2억원을 기부하며 각별한 애정을 표시하기도 했다.

본회는 정 고문의 이러한 동문사회

의 귀감을 기려 지난 2011년 12월14일 열린 ‘동국인의 밤’ 행사에서 ‘자랑스러운 동국인 대상’을 시상했다.

정 고문은 후배들에게 기회있을 때마다 “여러분은 동국이 배출한 인재다. 공직에서도 항상 모교를 각별히 생각했으면 좋겠고, 사회에서 성공하고 난 후에도 후배들을 격려하고 후원할 수 있는 좋은 선배가 되어 주길 바란다”고 강조해오고 있다.

정 고문은 또 “모교가 더욱 잘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기부를 결심하게 됐다”면서 “모든 학내 구성원들과 동문, 불자들께서도 십시일반으로 기부의 마음을 모아 모교 동국대학교가 발전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태주었으면 좋겠다”는 뜻을 함께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정 고문이 이끄는 KCC 그룹은 화학기업인 (주)KCC와 KCC건설이 주력회사이며 여주 금강CC 등의 자회사를 갖고 있다. 그동안 산업자원부 산업기술혁신대상, 전국경제인연합회 경영대상, 수출의 날 동탑산업훈장 및 7억불 수출무역탑을 수상한 기업이다.

수학과 1억원 조성 3천만원 모교 전달



도정인 회장

수학과동문회(회장=도정인, 78/82, (주)디오텍 대표)는 지난 3월15일(금) 모교 총장실을 방문, 수학과 후배들을 위한 장학기금으로

1차분 3천만원을 전달했다. 이 자리에서 수학과동문회는 앞으로 모금을 통해 1억원을 달성, 전달하기로 약정했다.

이날 전달식에는 도 회장을 비롯 수석부회장 김의창 동문(79학번, 경주캠퍼스 경영학부 교수), 이춘신 동문(65학번, 동문회 고문), 조영덕 교수(81학번), 문환표 교수, 조덕빈 교수(91학번) 등이 참석했다.

1954년 창설된 수학과는 지금까지 약 1,500여명의 동문이 배출되어 사회 각계각층에서 활약하고 있으며, 오는 2014년 학과 창설60주년을 앞두고 학과 발전 의지를 다지고 있다.

형종호 고문 모교 발전기금 1억원



본회 고문 형종호(56/60법학, 삼공기어공업 회장) 동문이 지난 6월19일 모교에 제2건학기금 1억원을 내놓았다.

‘쓸 만큼 벌고, 그 이상은 사회에

환원한다’는 평소 신념으로 인재양성을 위한 다양한 기부활동을 펼쳐오고 있는 형 고문은 지난 2012년 총동창회에 장학기금 1억6천만원을 보내왔었다. 2012년 3월에는 사재 30억 원을 출연해 ‘형남진장학재단’을 설립, 지난해 54명의 고등학생 및 대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했다. 이 장학재단은 모교에도 지난해와 올해 각 2명의 학생을 선발해 총 1천7백여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했다.

형 고문이 운영하는 삼공기어공업은 우수한 기술을 바탕으로 자동차용 기어를 전문적으로 생산해 독일 등 해외 50여개국에 납품하는 건설한 기업으로 국가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법학과 장학금 8명 각 100만원씩

2010년부터 총 21명에게 지급



김용길 회장

김용길 법학과동창회장, 김상겸 법과

법학과동창회는 지난 3월27일 모교 법학대학장실에서 재학생 8명에게 각 100만원씩 모두 800만원의 ‘후배사랑 장학금’을 전달했다. 장학금 수여식에는

대학장과 장학생 등이 참석했다. 김 회장은 “많은 선배들의 십시일반 정성이 담긴 장학금이 후배들에게 큰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법학과동창회는 2010년 6명, 2011년 7명, 2013년 8명 등 지금까지 총 21명에게 2100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이 장학금 지급을 위해 현재 60여명의 동문이 모금운동에 동참하고 있다.

동국장학회 예·결산안 의결

재단법인 동국장학회(이사장=이연택) 정기이사회가 지난 2월27일 열려 △2012년도 결산안 △2013년도 예산안 △재단의 세부운영 규정 제정안 △2013년도 1학기 장학금 지급안 등을 심의 의결했다.

2012년도 결산안은 지난 2월5일 감사를 통해 사업실적 총괄표와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및 각 부속 명세서상의 수입과 지출항목, 재무상태가 적정하게 표시되어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2012년도 결산 총 수입은 6억6천7백43만189원, 지출은 5억7천7백49만2천927원으로 차기 이월금은 8천9백93만7천262원이었다. 또 장학금 지급액은 4억1천9백만원이었다.

법인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세부운영 규정 제정안은 그동안 미비했던 ‘직원급여 지급 규정’과 ‘학술연구비 지급 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서울시 교육청 지적사항이었다.

심춘섭 동문 장학금 1천만원



했다.

심 동문은 이 자리에서 “재학시절 장학금을 받고 공부했는데, 그동안 후배들에게 베풀지 못했다. 특히 이연택 회장 이후 총동창회가 달라지고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줘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 싶었다”고 밝혔다.

이날 장학금을 기탁하는 자리에는 박영식(57/61정치), 오진모(57/61법학)동문 등 심 동문의 입학동기들이 배석했다.

심춘섭(57/61정치, (주)아텍스 미디어 회장)동문이 지난 3월18일 오전 본회를 방문, 이연택회장에게 장학금 1천만원을 기탁

행정학과 장학금 3천만원 전달

누적금액 1억원 넘어

행정학과 동문회(회장 =박동열, 73/78행정, 세무법인호람 회장)가 후배사랑 장학금 3천만원을 지난 3월25일 모교에 전달했다.

이번 장학금은 박동열 회장과 김진선(71학번,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장) 동문회 고문이 각각 1천만원의 장학금을 출연하고, 학과 동문들이 십시일반으로 보탬다.

전달식에는 박 회장과 김진선 고문 외에도 임병연(85학번, 글로벌코스메틱연구개발사업단 사무국장) 동문회 상임이사, 행정학과 심익섭, 광채기, 이주하, 주창범 교수와 재학생 등 40여명이 참석했다.

장학금은 4학년 이수민, 3학년 정현



김진선 고문



박동열 회장

준, 2학년 이민지 후배에게 박 회장이 직접 전달했다. 이 자리에서 박 회장은 후배들에게 “자신감과 패기를 가지고 열심히 노력해 사회 각 분야에서 성공하길 바란다”고 당부했으며, 김 고문은 “마부작침(磨斧作針)이라는 말처럼 뜻을 세우고 목표를 정해 실력을 갈고 닦다보면 좋은 결과가 있다”고 격려했다.

한편 행정학과 발전과 후배들의 면학 분위기 조성을 위해 동문들이 십시일반으로 모은 장학기금은 7천만원에 달하며, 이번에 기부 3천만원으로 누적 장학기금은 총 1억원을 돌파했다.

등록금 반액 장학금 등 50명 지급

동국장학회 2013학년도 1학기 장학금 수여식 가져

서울캠퍼스 정기총회에서 수여 재단법인 동국장학회(이사장=이연택)는 2013학년도 1학기 장학금으로 서울캠퍼스는 27명에게 3천7백40만원, 경주캠퍼스는 23명에게 2천980만원 등 총 6천720만원을 지급했다.

서울캠퍼스 장학금 수여식은 지난 3월21일 오후6시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본회 정기이사회 및 정기총회 자리에서 거행되었다. 총회 일정에 맞춰 장학금을 전달한 것은 후배들에게는 따뜻한 격려를, 선배들에게는 보람을 갖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이연택 총동창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총동창회는 동국의 역사와 전통에 걸맞는 위상과 평가 순위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며 "동국인의 자긍심을 가지고 선배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깊이 새겨 사회가 필요로 하는 큰 인재가 되어 달라"고 말했다.

이날 서울캠퍼스 장학금은 등록금 반액 14명, 신입생 2명, 정각원 및 ROTC 11명 등 모두 27명에게 3천7백40만원을 전달했다. 이번 장학금은 수혜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은 신입생 장학금을 신설하여 2명에게 1인당 2백만원씩 지급했으며, 정각원 및 ROTC장학금은 1인당 1백만원씩 지급했다.

◆등록금 반액=정상현(인철3) 정재현(영어통번역3) 이영이(통계4) 이정은(법학3) 박사연(국제통상4) 조태원(경영정보3) 김가영(의생명3) 김영세(전자전기3) 양정아(역사교육3) 황슬기(불교미술4) 유지연(약학3) 박준하(식품생명3) 이수경(화공생물4) 김지현(불교미술3)

◆신입생=박선우(법학1) 김대유(컴퓨터1)

◆정각원=무념스님(대학원) 배재란(대학원) 조은빈(대학원) 배수영(대학원) 비즈루(대학원) 이원빈(통계4) 이우영(정의4)



▲ 서울캠퍼스 장학금 전달식이 선배들의 뜨거운 격려를 받으며 진행되었다.



▲ 경주캠퍼스 장학금 수여식 후 원호관 앞에서 '동국 화이팅'을 외치고 있다.

◆ROTC=윤영환(경행4) 황석태(전자전기4) 조지현(전자전기4) 이학균(교육4)

경주캠퍼스 장학금 4월4일 전달
경주캠퍼스 장학금 수여식은 지난 4월4일 원호관 글로벌에이스홀에서 거

행되었다. 이번 장학금은 어려운 가정형편 속에서도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는 우수 학생 18명과 지난 학기 선발된 계속 장학생 3명, 신입생 2명 등 모두 23명에게 모두 2천980만원을 지급했다.

◆등록금 반액=노보람(한국음악4)

김재현(국문4) 김경표(안전공학4) 박주리(원자력3) 김미소(행정4) 김선화(호텔경영3) 박아름(유아교육3) 김문진(한외3) 최유정(의학4) 이재희(불교미술3) 오한미(수학교육4) 노슬예(한외3)

◆신입생=이채현(조경1) 김영선(불교아동1)

◆학습장려=유세진(한국음악2) 김누리(일문4) 황미정(바이오4) 김웅빈(원자력3) 홍상희(사회복지4) 김소아(회계3) 염근영(가정교육4) 김민선(한외2) 정다원(간호3)

장학기금 CMS "십시일반 힘 모아야"

장학기금을 CMS(통장 자동이체서비스)로 납부하자며 몇몇 동문들이 솔선수범하고 있으나 아직 성과를 올리지 못하고 있다. 매월 10만원씩 장학기금으로 이체하고 있는 김철완(법학 88학번) 동문은 "후배들을 위해 목돈을 내기는 힘들지만, 많은 동문들이 힘을 모으면 적지 않은 후배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또 현웅기(행정 81학번) 동문도 매달 10만원씩을 이체하며 "동문들이 조금만 관심을 갖고 성의를 보여 주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진주동문회 1백만원

재진(진주)동국대동문회(회장=여은규, 55/60영문, 前 삼천포공고 교장)가 후배들을 위한 장학기금으로 지난 4월22일 1백만원을 송금해왔다. 재진동문회는 지난 4월초 모임을 갖고 신입회장에 윤덕식(56/60사학, 前 단성종합고 교감) 동문을 선출했다.

재단정관 · 동창회관 · 평의원회 현안 논의

조직강화특위 조직활성화 5대과제 등 상반기 사업 발표

금년도 상반기 조직강화특별위원회 겸 지부(회) 회장단 연석회의가 80여 명의 각급 임원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5월2일 저녁 프레스센터에서 열렸다.

이연택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모교의 위상과 긍지를 살리고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동문들이 하나로 뭉쳐 불법적인 행위를 저지하고 난관을 돌파해야 희망이 있다”면서 “우리 동창회의 역할과 책임을 분명히 하여 학교와 재단에 협력할 것은 협력하되, 잘못된 점은 주인정신으로 문제를 제기함으로써 동국 발전에 적극 동참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본회 3대 현안문제로 △대학평의원회 동문 대표 참여 △동창회관 건립 합의서 실현 △학교법인 임원 선임 및 정관개정 적법절차 요구 등을 논의했다.

또 조직강화 5대 사업으로는 △경제인회 창립 △체육인회 창립 △문화예술인회 창립 △1,000인회 구성 △회비 CMS(자동이체 서비스) 활용도 제고



▲ 연석회의는 “총동창회를 중심으로 모교발전에 힘을 모으자”고 다짐했다.

등을 적극 추진하기로 결의했다.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특히 3대 현안에 대해 깊은 관심을 표명하고 조직강화특별위원회 결의사항으로 학

교법인이나, 모교, 종단에 대해 적극 대처해줄 것을 주문했다.

회의 진행은 김진억 조직담당 부회장이 총동창회 현황 및 주요 활동

계획과 5월27일 열리는 제7회 동국 인천선골프대회에 대해 설명했으며, 박용재 사무총장은 3대 현안 및 5대 조직강화 사업 업무 추진 내용을 소개했다.

자유토론에서 김오현 대외협력담당 부회장은 “지부(회) 모임이 튼튼해야 총동창회 활동이 활성화 된다”고 말했으며, 박영민 해동회 회장은 “종단과 재단은 학교에 능동적으로 재정투자를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박태권 정의과 동창회장을 비롯 허창식 영문과동창회장, 홍성우 생명과학과동창회장, 정훈모 국민은행동창회장, 김영환 ROTC동창회장, 이운길 천안동문회장, 조충미 여자동창회 수석부회장, 이계문 동국7080 사무총장, 이계홍 홍보분과 위원, 우태주 전용인동문회장 등이 차례로 나서 “자체적인 조직강화는 물론 총동창회를 중심으로 모교발전의 큰 축이 되도록 역량과 지혜를 모아나가자”고 의견을 개진했다.

경찰행정학과 50주년 비전 선포

‘형사사법글로벌 톱10’ 진입 다짐



경찰행정학과는 지난 4월27일 오후 6시 서울 롯데호텔 2층 크리스탈볼룸에서 열린 ‘학과 창설 50주년 기념 및 비전 선포식’에서 ‘World Class 동국경행’이라는 비전과 ‘형사사법글로벌 TOP 10 진입’이라는 목표를 세우고 교육·연구혁신(Innovation), 전문화(Specialization), 국제화(Globalization) 등 세가지 전략과제를 천명했다. 또 이를 위해 동문들이 앞장서서 2030년

까지 발전기금 30억 원을 모금하기로 결의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장학금 및 발전기금으로 경찰행정학과 명예교수 및 교수 일동 1천6백만원, 경찰행정학과 동문 일동 1억8천320만원, 경찰사법대학원 재학생 일동 3천1백55

만원, 행정대학원公安행정학과 동문 일동 1천2백만원, 경찰행정학과 일반대학원 동문 일동 6천440만원등 총 3억715만원을 모금했다.

1963년 3월 첫 입학생을 맞이한 경찰행정학과 졸업생들은 경찰, 국가정보원, 대통령 경호실, 검찰 등의公安분야 뿐만 아니라 학계와 일반기업 등 사회 각계각층에 진출하여 국가발전의 견인차가 되고 있다.

통계학과 50주년 기념식

장학기금 1억원 조성 결의

통계학과 개설 50주년 기념식이 역대 교수, 동문, 재학생 등 2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5월11일 오후 모교 상록원에서 열렸다.

이날 1부는 통계학과 연혁 소개와 구지흥, 김종호, 이순 명예교수 등의 축사 순으로 진행되었으며, 2부는 참

석동문 소개와 동창회 활동보고, 재학생과의 친교시간, 공연이 이어졌다.

통계학과는 1963년 3월1일 문리과대학 소속으로 신설되어 현재까지 2천여명의 학부 및 대학원생을 배출해냈으며, 지난 2012년부터 1억원 목표 후배 장학기금 조성사업을 벌여 현재 3천여만원을 모금했다.

후배 취업보도 동창회가 편다

모교와 함께 동문기업체 방문 활동



본회 취업담당 분과위원회(위원장=김환배 상임부회장, 사진)가 모교 취업지원센터와 손잡고 동문기업 방문, 홍보하는 등 후배들의 취업지원 활동에 적극 나선다.

1차로 지난 6월10일 김환배 부회장과 모교에서 정각원장 법타스님과 박서진 취업지원센터장이 합동으로 한우삼(63/69농학) 동문이 대표로 있는 태양금속공업과 안산상공회의소를 다녀왔다. 또 6월25일에는 동진기업 송석환(64/68농경) 회장을 방문하는 등 상반기중에 10여개 기업 협조를

받을 계획이다.

이에 앞서 총동창회는 취업담당 분과위원회를 중심으로 지난해 하반기부터 모교 취업부서 관계자들과 만나 동문기업인 발굴과 취업보도와 연계 등을 검토, 협의해 왔다.

본회는 지난 2월 1천여명에 이르는 동문기업인 명단을 작성했으며, 이를 다시 대기업, 중소기업 등으로 분류하여 후배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 기업을 선별해 놓은 상태이다.

이번 취업보도 활동은 후배들의 직장 알선을 통해 선후배간의 끈끈한 동문애를 각인시키고, 모교 취업률 향상에 이바지해 동국의 대외 이미지나 평가순위를 향상시키자는 취지로 진행되고 있다.

83학번 입학30주년 홈커밍데이

83학번 입학30주년기념 모교방문의 날 행사가 지난 5월 25일(토) 오후 5시 본관 중강당 및 상록원에서 1백여명의 동문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83학번 동문들은 이번 행사를 위해 작년 12월부터 학과별로 1~2명씩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행사를 준비했으며, 이날 참가비의 일정부분을 30년 후배인 13학번 장학금으로 전달했다.

이연택 총동창회장은 이 자리에서 격려사를 통해 “우리 모두에게 모교는, 또 함께 공부하며 고락을 함께 했던 동문들은 우리가 사는 동안 영원히 함께 가야할 소중한 보물과도 같은 존재”라며 “오늘 이 자리가 따뜻

한 모교의 품안에서 모교 사랑하는 마음과 더불어 동문애를 확인하는 특별하고 유익한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하고 83학번 행사 후원금으로 1백만원을 전달했다.

이제근 83학번 모교방문의 날 행사 대표위원장(정치외교)은 인사말에서 “입학 30년을 맞아 20대 꿈과 희망을 키우던 모교가 있는 동국의 큰 숲에 다시 모였다”면서 “좋은 만남이 좋은 인연을 만들고 좋은 인연은 좋은 흔적을 남긴다. 오늘 우리의 만남은 소중한 인연을 만들고, 우리의 남은 삶에 따뜻한 흔적을 남길 것이다”라며 앞으로 지속적인 만남을 다짐했다.

雨中에 더욱 빛난 동문 친선골프

학과·대학원·지역·동호회별 첫 대항전 47팀 참가



제7회 동국인 친선골프대회가 지난 5월27일 오후 서울과 경주, 대구 등에 산재한 각급단위 동문회 소속 47개팀 174명이 참가한 가운데 기흥 골드CC에서 동국인의 기상과 단합을 과시하며 성대히 치러졌다.

모교 개교 107주년을 기념하여 총동창회와 모교가 공동 주최한 이날 대회는 당초 56개팀 224명이 참가 신청했으나 오전부터 내리기 시작한 우천으로 인해 47개팀만 출전했으며, 학과·학번팀, 대학원팀, 지역팀, 동호회·직장팀 등 4개 그룹으로 나누어 라운딩을 가졌다.

이날 이연택 회장은 시상식에서 인사말을 통해 "이번 대회는 총동창회 단위조직이 그대로 골프대회로 이어졌다는데 의미가 있다"면서 "비바람 속에서도 동국인의 용맹정진 기상으로 하나됨을 보여줌으로써 동국인의 자부심이 더욱 빛난 대회였다"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4개그룹으로 나눠 우승 등 시상

우천 때문에 9홀만으로 경기를 마친 이번 대회는 참가팀 성적 30%와 경기 성적 70%를 적용하여 그룹별로 우승팀, 준우승팀, 3등팀을 뽑아 트로피와

부상을 수여했으며, 개인상으로는 메달리스트, 룽게스트, 니어리스트상을 시상했다.

박용재 사무총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시상식에서는 이연택 회장과 김희욱 총장, 박종운 고문, 김재기 고문, 송석구 고문, 최규철 고문 등이 차례로 각 부문 입상자를 시상했다. 각 부문별 부상으로는 우승 50만원, 준우승 30만원, 3등 20만원, 메달리스트 50만원(백화점 상품권), 룽게스트·니어리스트 각각 10만원(주유상품권)이 주어졌다.

이날 입상한 △전남 순천(회장 윤태준)팀=70만원 △정치외교학과(회장 박태권)팀=50만원, △행정대학원(회장 오복섭)팀=50만원, △사회과학대학원(회장 김석만)팀=20만원은 총동창회 장학금으로 다시 내놓아 참가자들의 뜨거운 박수를 받았다.

동국인의 자부심 만찬장서 재확인

이날 류수택(60/67경영, 새누리당 최고위원) 광주광역시 지부장과 이상직(82/86경영, 국회의원, 이스타항공 회장)동문은 바쁜 일정중에도 만찬장을 방문하여 자리를 함께 했으며, 박상규(57/61국문, 전 국회의원), 김종형(81/88경영, 경주직할동창회장), 임욱

린 이날 대회는 배구, 줄다리기, 실내골프, 윷놀이 등이 진행되어 종합우승은 사회과학대학원동창회(회장=김석만), 2등은 평생교육원동문회, 3등은 대구지부가 차지했다.

이번 대회에는 경주직할동창회, 서울 강남지부, 대구지부, 경남지부, 불교문화대학원, 사회과학대학원, 경주캠퍼스 재직동문회, 평생교육원동문회 등이 참가했었다.

동국인 체육대회 500명 참가

사회과학대학원 우승

각 지부(회) 조직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제24회 동국인 친선체육대회가 서울, 경주, 대구 등 8개 지부(회) 5백여명의 동문들이 참가한 가운데 지난 6월2일 경주캠퍼스 문무관에서 열렸다.

총동창회 주최, 대구·경북지부(회장=손창수, 81/87한의) 주관으로 열



(81/85미술) 동문이 차례로 건배제에 나섰다.

만찬행사는 김종필(82/88경제, 내일신문 정치부장)동문 사회로 간단한 퀴즈와 행운권 추첨 등을 가졌다.

행운권 추첨은 88올림픽 기념 금화, 2002 한일월드컵 기념은화, 아이패드, 갤럭시노트, 동경 및 제주 부부 왕복항공권, 건강검진권, 히말라야 그림액자 등의 다양한 경품을 놓고 경품협찬자가 직접 추첨 했다.

이날 참가상품으로는 멀치 1세트와 롤케익이 준비되었으며, ROTC동문회(회장=김영환)에서 협찬한 각종 빵 6백개는 라운드 중 간식으로 제공되었다.

행사 잉여금 장학금으로 기부해

한편 이날 9홀 라운딩에 따른 그린피 잔액 등 행사 잉여금은 송석구 고문의 제의에 따라 총동창회가 운영하는 재단법인 동국장학회에 기부됐다. 한편 지난 5월29일 열린 제7차 상임위원회에 보고된 이번 골프대회 잉여금은 9백84만8천500원, 1인당 평균 경비는 24만5천965원으로 결산되었다.

◆제7회 대회 입상자 명단

- ◇학과·학번팀
 - ▲우승=82학번동기회 C팀 ▲준우승=정치외교학과 A팀 ▲3등=정치외교학과 B팀
 - ◇대학원팀
 - ▲우승=행정대학원 A팀 ▲준우승=불교대학원 A팀 ▲3등=사회과학대학원팀
 - ◇지역팀
 - ▲우승=전남 순천 A팀 ▲준우승=대구팀
 - ▲3등=전남 순천 B팀
 - ◇동호회·직장팀
 - ▲우승=ROTC A팀 ▲준우승=ROTC B팀
 - ▲3등=ROTC D팀
 - ◇메달리스트=임 욱(81/85미술)
 - ◇룽게스트=박진수(88/94통계)
 - ◇니어리스트=송익균(89/98사대원)

◆현금 협찬 동문

- ▲이연택 회장=5백만원
- ▲송석환 수석부회장= 5백만원
- ▲한우삼 상임부회장=5백만원
- ▲박종운 고문=1백만원

◆행운권 경품 협찬

- ▲이연택 회장=88올림픽기념 금화 1세트, 2002월드컵기념 은화 1세트
- ▲김희욱 총장=아이패드 1대
- ▲이계영 경주총장= 갤럭시노트 II
- ▲이진호 의료원장=건강검진권 2매
- ▲이인정 대한산악연맹 회장=히말라야 그림(고 박영석동문 싸인) 1점
- ▲김진선 2018평창올림픽조직위원장=백화점 상품권(50만원)
- ▲김환배 성화실업 대표이사=주유상품권(30만원)
- ▲이상직 국회의원=일본 도쿄 왕복항공권 2매, 제주 왕복항공권 4매

4.19 53주년 추모식

4.19동지회 등 동우탐서

4.19 제53주년을 맞아 기념 추모식이 지난 4월19일 오전 11시 동우탐앞에서 거행됐다. 이날 추모식에는 4.19 혁명동지회 윤성열 회장과 회원, 모교 박정극 학술부총장과 정각원장 법타스님, 총학생회 간부 등 6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행사가 열린 동우탐은 지난 1960년 4.19 혁명 당시 희생된 노회두 동문 등을 추모하기 위해 건립한 기념비로, 이후 매년 4월 19일이면 민주주의를 위해 희생된 자랑스런 동문의 뜻을 기리고자 모교와 4.19 참가 동문들이 합동으로 추모식을 개최해오고 있다.

이에 앞서 4.19유공자회(회장=김성재)는 4월18일 오전 동우탐에서 추모식을 갖고 당시를 회상하며 눈시울을 붉혔다.

한편 모교는 지난 4월12일 3천여명의 교수, 직원, 학생들이 참가한 가운데 북한산에서 4·19기념 동국인 등반대회를 가졌다.

4.19유공자회장 김정걸 동문



4.19혁명국가유공자회(회장=김성재, 58/63정치)는 지난 5월 22일 서울 광화문소재 나무향기에서 40여명의 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총회를 열고 신입회장에 김정걸(58/63법학, 사진) 동문을 선출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부회장에 박종구(59/65경영) 동문, 사무총장에 김덕일(59/63법학) 동문, 감사에 정진영(58/65경제) 동문을 각각 선임했다.

광주광역시지부 아우회

광주지부(회장=류수택) 하계 아우회가 지난 6월6일 회원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북 진안 마이산과 백운동 계곡에서 화기에애하게 열렸다.

법정동우회 정례모임

법정동우회(회장=김기유, 74/80행정) 정례모임이 회원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5월3일 서울 중구에 있는 음식점 어상에서 열렸다. 이날 모임에는 이연택 본회 회장, 박용재사무총장이 초대되었으며, 참석자 소개와 회원 근황 등이 보고되었다. 법정동우회 회원은 법학과, 행정학과, 정치외교학과, 경찰행정학과 등 70학년부터 80년대 학번까지의 법정대학 동문들로서 공직자가 주축을 이루고 있다.

이연택 회장은 이날 격려사에서 "각 계각층에서 열심히 노력해서 사회적으로 성공을 거두고, 동국인의 긍지로 함께하고 있는 여러분이 자랑스럽다"고 치하했다.

“과거 전통과 명성 되찾겠다”

정의과 차문희·이정현 동문 축하패



정치외교학과동창회(회장=박태권, 71/75정외) 정기총회가 지난 4월 25일 오후 7시 서울로얄호텔에서 1백여명의 동문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박태권 회장은 인사말에서 “정의과가 할 일을 하고 단합된 힘을 과시함으로써 과거의 명성을 되찾겠다”고 밝혔다.

이연택 총동창회장은 축사에서 “전통과 역사가 깊은 정치외교학과는 한국 정치계의 최고 명문학과로서 우리 동국대학교를 빛내 주었다”며 “정의과 동문들의 단합과 노력이 총동창회

와 모교 발전에 큰 역할을 해주길 기대한다”고 격려했다.

이 자리에서 이연택 회장은 총동창회 발전에 노심초사하는 노고를 기려 정의과 회원일동 명의로 공로패를, 차문희(72/79정외, 전 국정원 차장)동문과 이정현(78/85정외,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은 정의과를 빛낸 동문으로 축하패를 각각 받았다.

이윤훈(73/81정외) 사무총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총회는 이어 감사보고와 의안심의 등의 안건을 처리했다.

강서회장 김재응 동문



서울 강서동문회(회장=김낙돌, 64/71경제)는 지난 4월10일 총회를 열어 신입회장에 김재응(65/69경영, (주)우성에이디엠 대표이사, ROTC 7

기, 사진) 동문을 만장일치로 선출했다.

강서동문회는 매월 월례회를 통해 선후배간 친목과 동국사랑에 뜻을 함께하고 있다.

신용보증기금 단합대회

신용보증기금동문회(회장=박국근, 80/84회계) 단합 등반행사가 지난 4월

20일 30여명의 동문이 참석한 가운데 남산에서 있었다.

이번 행사에 참석한 동문들은 남산 등반 후, 모교를 방문하여 학창시절의 추억을 되새기며 캠퍼스 곳곳을 둘러보는 시간을 가졌다.

상수회장 어연호 동문



재학시 총학생회장을 역임한 동문들의 모임인 상수회(회장=남기일, 65/72경영)는 지난 3월 20일 삼성동 소재 ‘대나무집’에서 정기총회를 갖

고 신입 회장에 어연호(71/78입학, 사진) 동문을 선출했다.

중국동문회 북경에서 총회·골프행사 열려



▲ 중국동문회(회장 윤종필, 83/87사회) 총회가 북경동문회 주최로 지난 6월1일 북경 자하문 한정식식당 연회장에서 열렸다. 친선골프대회는 대중 골프장에서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천진, 청도, 상해, 소주에서 100여명의 동문이 참석했다.

경영전문대학원 회장 이·취임

신임회장에 이춘호 동문

경영전문대학원 정기총회 겸 신·구 회장 이·취임식이 지난 3월11일(월) 오후 6시30분 앰배서더호텔 오키드룸에서 열렸다.

회원 1백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날 정기총회는 역대회장단 회의에서 추천된 이춘호(89/91, (주)신희 대표이사)동문을 신임회장으로 공

식 선임한 뒤 곧바로 이·취임식을 가졌다.

이 신임회장은 취임사에서 “경영전문대학원의 전통과 자부심을 더욱 신장시키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전임회장 최종윤(83/85, 우리종합건설 회장)동문에게는 감사패를 전달, 지난 임기동안 동창회 발전에 기여한 노고를 기렸다.

김중배 민주열사 흉상 제막



六.三의거 민주열사 김중배(63/65농학)동문 흉상 제막식이 지난 5월9일 오전 11시 모교 만해광장 동우탑 옆에 세워진 고인의 동상앞에서 거행되었다.

김 동문의 흉상은 서거 48년만에 그 시대를 함께 한 동지들과 동문들이 뜻을 모아 건립한것으로 모교 미술학과 김황록교수가 조각했다. 브론즈로 제작된 흉상 크기는 높이 73cm×가로 60cm×세로 35cm이다.

흉상을 받치는 좌대는 화강암으로 높이 1,450cm, 가로 70cm, 측면 45cm이며, 전면에는 흉상과 ‘六.三의거 민

주열사 김중배상’이라는 이름이 새겨져 있으며, 후면에는 김지하 시인의 ‘仲夫 푸른 한울로’라는 시귀와 김중배 민주열사 흉상건립위원회 명의의 추모사를 새겼다. 또 우측면에는 건립위원회 장장순 고문, 박동인 위원장, 김삼철 부위원장과 도움을 주신 동문, 농학과동창회, 총동창회, 동국대학교 등의 이름을 새기고 있다.

김 동문은 1963년 모교에 입학하여 한일골목외교 중단, 매국노 처단, 평화선 사수등의 구호를 외치며 시위에 앞장서다 1965년 4월13일 진압경찰의 곤봉을 맞고 다음날 병원에서 운명했다.

ROTC 후보생 모의 소총 구입 지원

금년도 주요 행사일정 등 확정

ROTC총동문회(회장=김영환, 71/75정외)는 지난 3월28일 용산소재 용사의집에서 원용선(59/63영문) 총명예회장 등 임원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3년도 제1차 정기이사회 및 회장단 회의’를 가졌다.

이날 회의에서는 △수석부회장 인준(윤관욱, 73/77화공, 15기) △각 기별 회장단 당연직 임원 선임 등의 안건이 만장일치로 의결되었다.

이학균 사무총장은 금년도 주요 행사일정으로 △제3회 총동문회 남산길 걷기대회(5월 11일) △제1회 ROTC의 날 행사(6월1일) △현충원 참배(6월2일) △제5회 한마음 한마당 체육대회(10월) △2013년 정기총회 및 21기 임관 30주년 축하연(11월28일) 등을 보고했다.

한편 임원들은 이현 학군단장으로 부터 학군단 현황보고를 듣고 후보생들을 위한 훈련용 모의 K2소총 70정

구입비를 즉석에서 모금하여 전달하였다.

‘명예의 전당’ 헌액

ULTRA112 발전기금 모금

ROTC ULTRA112 발전기금 명예의 전당 헌액식이 지난 2월28일 원흥별관에 자리한 학생군사교육단 로비에서 있었다.

ULTRA112 발전기금은 지금까지 170여명이 참여하여 총 1억2천7백여만원 모금했다.

주요 기부자로는 △성영석(9기)=5,030만원 △21기 동기회=1천만원 △민흥기(10기)=510만원 △박대신(11기)=380만원 △김중화(9기)=324만원 △홍영춘(3기)=300만원 △이영균(10기)=300만원 등이 있다.

이정현 · 조광래 동문에게 ‘자랑스러운 동국인상’



이정현 동문



조광래 동문

‘자랑스러운 동국인상’을 수여, 축하했다. 이날 이정현 동문은 바쁜 시간을 쪼개어 총회에 나와 수상소감을 통해 “동국대 정치 선배들의 혁혁한 활동을 본보기로 삼아 학창생활을 했고 그 금지와 자부가 정치선택의 큰 뿌리였고 힘이 되고 있다”고

말하고 “우리 동국의 빛나는 전통과 업적에 누가 되지 않도록 국가를 위해, 동국을 위해 헌신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조광래 단장은 개인 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했다.

본회는 지난 3월21일 열린 정기총회 자리에서 청와대 정부수석비서관으로 부임한 이정현(78/85정외)동문과 국내 최초로 우주선 발사 성공을 이끈 나로호 우주발사추진단장인 조광래(78/82전자)공문에게 ‘자

금탑산업훈장 수상 태양금속회장 한우삼 동문



업훈장 최고의 영예인 금탑산업훈장을 수훈했다. 2015년 매출 1조원 달성과 세계적인 자동차 부품 메이커로 성장 목표를 세운 태양금속은 중국 연대·장가항법인 및 인도 첸나이에 단조 및 가공조립 공장을 설립하였고, 미국 디트로이트에 판매법인을 두어 최적의 공급 네트워크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275명이 훈포장을 받은 이날 기념식에는 박근혜 대통령과 강창일 국회 지식경제위원장, 손경식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등 1천여명이 참석했다.

특허청 차장



남기만(82/86무역) 동문이 지난 4월1일 특허청 차장으로 승진했다. 남 동문은 행정고시 29회로 공직에 입문한 뒤 통상산업부 기계항공팀장, KOTRA 외국인투자지원센터 행정지원실장 등을 지냈다. 또한 지식경제부 감사관과 주력산업정책관(국장)을 역임했다.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보관스님(71/75불교, 모교 불교학부 교수)이 국가인권위원회의 비상임위원에 연임됐다. 지난 2010년 2월 인권위원으로 1차 임명돼 임기(3년)를 마쳤으며, 이번 연임으로 2016년 4월17일까지 활동한다. 모교 불교대학장 겸 불교대학원장과 등을 맡았으며 성남시 정토사 주지로 있다.

새누리당 최고위원



유수택(61/65경영, 새누리당 광주시당 위원장) 동문이 지난 5월13일 새누리당 지명직 최고위원에 올랐다. 유 동문은 순천시장, 내무부 민방위국장, 광주시 행정부시장, 전남 개발공사 사장, 조선대 법인 이사장 등을 역임한 대표적인 호남지역 인사로 꼽힌다.

상하이 총영사



구상찬(77/81체교)동문이 지난 5월3일 중국 상하이(上海) 총영사에 내정됐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2007년 한나라당 대선후보 경선에 나섰을 당시 공보특보를 지낸 친박계 인사다. 18대 국회의원을 지내면서 한중문화연구회 회장을 맡는 등 당내 대표적 중국통이다.

니카라과 대사



김두식(78/82법학)동문이 지난 6월14일 있는 외교관 인사에서 니카라과 대사로 발령받았다. 1986년 7급 공무원으로 외교부에 들어가 20여년간 중남미 지역에서만 근무해왔다. 코스타리카, 칠레공사, 페루공사 총영사 등을 지냈다. 6월17일 신임장을 받고 6월 하순 현지에 부임한다.

서울지방노동위원장



전운배 동문(79/86경제)동문이 지난 4월14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으로 부임했다. 노동부 노사정책팀장, 노사협력복지팀장을 거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상임위원, 고용부 노사협력정책관, 기획조정실장을 지냈으며 노동전문가로서 알려져 있다.

대구시 행정부시장



여희광(79/83행정)동문이 소방방재청 기획조정관에서 대구광역시 행정부시장으로 지난 4월29일자로 영전했다. 여 동문은 1983년 행정고시 26회에 합격, 대구시 문화체육국장, 경제산업국장, 군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사무국장, 대구시 기획관리실장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충남 부지사



박정현 동문(82/90정외)동문이 지난 2월 충청남도 정부부지사에 취임했다. 박 동문은 4대강 사업 전면 재검토를 위한 특별위원회 공동위원장, 민주당 행정중심 복합도시(세종시) 원안추진위원회 부위원장, 민주당 부여·청양지역위원장 등으로 활동해 왔다.

국제레슬링聯 심판위원장



김익종(64/66경제)동문이 지난 2월 아시아인으로서는 최초로 국제레슬링연맹(FILA) 심판위원장에 피선됐다. 임기 4년. 유럽 국가들의 영향력이 막강한 FILA에서 아시아인이 심판위원장을 맡는 것은 처음이다. 지난해 런던올림픽을 비롯 국제심판으로 올림픽판 8차례 치렀다.

우리금융지주 부사장



정화영(78/85정외) 동문이 지난 6월14일 우리금융지주 부사장으로 부임했다. 우리는 행 검사실 수석부장, 기업개선 지원단장, HR본부장, 인사담당 부행장을 지냈으며 지주사로 자리를 옮겨서는 인사, 감사 등 경영지원본부의 주요업무를 맡게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一心同體... 우리는 언제나 한 마음 한 몸입니다

총동창회는 동국인 여러분의 참여와 협력을 동국발전의 에너지로 빛어내고 있습니다.

• 일반회원 1년 회비 : 3만원 • 평생회비 : 50만원

• 임원 분담금

▪ 고문 : 1백만원 이상 ▪ 부회장 : 1백만원

▪ 지도위원 : 30만원 ▪ 상임이사 : 20만원 ▪ 이사 : 10만원

▪ 송금계좌 : 국민은행 006001-04-237869 (예금주: 동국대학교 총동창회)
외환은행 150-22-01536-0 (예금주: 동국대학교 총동창회)

※문의사항은 총동창회 사무처(전화 02-733-3993, 736-4988)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동 국 대 학 교 총 동 창 회

새정부 요직 진출



서남수 교육부장관

교육부장관 서남수 동문
서남수(87/96대학원 박사)동문이 제43대 교육부 장관으로 지난 3월11일 취임했다.
서 동문은 1978년 제22회 행정고등고시에 합격한 뒤부터 줄곧 교육행정가의 길을 걸어 교육인적자원부 행정사무관, 기획관리실, 교육정책기획관, 서울시교육청 부교육감을 거쳐 2007년 교육인적자원부 차관 등을 역임했다.
지난해 7월에는 위덕대 개교 이래 최초로 공모를 거쳐 제5대 총장으로 선임됐다.

경찰청장 이성한 동문
이성한(75/79경행) 동문이 국회청문회를 거쳐 지난 3월29일 제18대 경찰청장에 취임했다.
이 동문은 모교 경찰행정학과에서



이성한 경찰청장

학사·석사·박사학위를 받았으며, 1983년 간부 후보 31기로 경찰에 입문했다. 수사, 정보, 외사 등의 분야에서 두루 근무했으며, 외사 부문에 가장 정통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경남 거창, 강원 태백, 서울 수서경찰서장과 경찰청 감사관, 외사국장, 충북지방경찰청장, 부산지방경찰청장 등을 역임했다.

소방방재청장 남상호 동문
남상호(73/81경행) 동문이 제6대 소방방재청장으로 지난 3월18일 취임했다. 소방방재청은 지난 2004년 6월1일 정부 역사상 최초로 국가재난관리 총괄기관으로 출범했다.
남 동문은 충북소방본부장, 행정자치부 소방국장, 소방방재청출범준비단 총괄팀장, 한국소방검정공사 사장을 거쳐 대전대 소방방재학과에서



남상호 소방방재청장



이일수 기상청장

교수로 재직했다.

기상청장 이일수 동문
이일수(85/87행원) 동문이 지난 3월18일 제10대 기상청장에 취임했다. 이 동문은 1988년 행정사무관으로 특채돼 경제개발협력기구 과학참사관, 과학기술부 기술협력2과장, 미주 기술협력과장, 총무과장, 부산지방기상청장, 기상청 기획조정관 및 차장을 역임했다.

무역위원장 홍순직 동문
홍순직(66/71경영) 동문이 신임 무역위원회 위원장(비상임)으로 위촉됐다. 상공부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무역 조사관, 중소기업창업지원과장 등을 지냈다. 이후 삼성자동차 전무, 삼성 SDI 부사장으로 근무하여 산업 분야의 정책과 현장을 통괄하



홍순직 무역위원장



최세균 농촌경제연구원장

는 폭넓은 식견과 경험을 가지고 있다.
2010년 10월15일부터 전주비전대학 총장으로 일하고 있다. 임기는 6월 22일부터 2016년 6월 21일까지다.

농촌경제연구원장 최세균 동문
최세균(75/81농경) 동문이 지난 5월30일 열린 국무총리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제153차 이사회에서 제13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원장으로 선임됐다.
농촌경제연구원에서 잔뼈가 굵은 최 동문은 국제농업연구센터장, 글로벌협력연구본부장, FTA 이행지원센터장과 부원장 등으로 활동하며 농식품부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과 한·미 FTA 협상에 참여한 바 있다.

▶경찰청 인사 이동 (치안정감·치안감·경무관·총경)



신용선 동문



이금형 동문



윤종기 동문



최현락 동문



구은수 동문



윤철규 동문



이상원 동문



장전배 동문



정순도 동문

경찰청은 지난 4월5일 치안감 인사에 이어 경무관과 총경급 인사를 차례로 단행했다.

◆ 치안정감 승진
▲부산지방경찰청장 = 신용선(73/77경행)
▲경찰대학장 = 이금형(99/02행원,05/08대학원 박사)

◆ 치안감 승진
▲서울지방경찰청 차장 = 윤종기(79/83경행)
▲경찰청 수사국장 = 최현락(99/02대학원 박사)

◆ 치안감 전보
▲경찰청 외사국장 = 구은수(78/85경행)
▲강원지방경찰청장 = 윤철규(78/85경행)
▲경찰청 경무인사기획관 = 이상원(77/81경행)
▲경찰청 보안국장 = 장전배(98/05대학원)
▲광주지방경찰청장 = 정순도(74/81경행)

◆ 경무관 전보
▲박경민(대학원 박사수료)=서울경찰청 보안부장
▲정해룡(78경행)=서울경찰청 수사부장
▲조현배(대학원 박사)=서울경찰청 경무부장
▲허영범(78경행)=경찰청 수사기획관

◆ 총경 전보
▲강현신(77경행)=서울지방경찰청 중량서장
▲구본걸(74경행)=강원지방경찰청 횡성서장
▲김관태(74경행)=충남지방경찰청 공주서장
▲김상우(82경행)=경기지방경찰청 양평서장
▲김성권(76경행)=서울지방경찰청 노원서장
▲김소년(84경행)=경북지방경찰청 의성서장
▲김창수(대학원 박사과정)=강원지방경찰청 보안과장
▲김해경(행원)=경찰청 보안1과장
▲나유인(76경행)=전북지방경찰청 익산서장

▲남택화(79경행)=서울지방경찰청 홍보담당관
▲박외병(대학원 박사)=국립과학수사연구소 총무과장
▲박현규(73경행)=인천지방경찰청 경무과 대기
▲박형길(81경행)=경찰청 정보1과장
▲신상석(78경행)=경기지방경찰청 안산단원서장
▲안중익(77경행)=인천지방경찰청 중부서장
▲유윤종(대학원 박사과정)=서울지방경찰청 경무과(치안지도관)
▲유현철(78경행)=경찰청 외사기획과장
▲윤동춘(80국문)=서울지방경찰청 경무과 (치안정책관)
▲윤명성(대학원 박사)=서울지방경찰청 202 경비단장
▲윤성태(대학원 박사과정)=경찰청 외사수사과장
▲윤창수(76경행)=경남지방경찰청 하동서장
▲이동민(82경행)=전북지방경찰청 정보화장비담당관
▲이문국(대학원 박사과정)=경기지방제2경찰청 생활안전과장(2청)

▲이성형(74경행)=인천청국제공항 경찰대장
▲이승길(77경행)=전북지방경찰청 경무과장
▲이은정(83경행)=서울지방경찰청 마포서장
▲이재영(74경행)=경기지방경찰청 경찰행정 74경무과(대기)
▲임국민(78경행)=경기지방경찰청 인천서장
▲임정섭(76법학)=서울지방경찰청 동대문서장
▲전병용(77경행)=서울지방경찰청 도봉서장
▲조용식(82경행)=서울지방경찰청 정부중앙청사 경비대장
▲진정무(대학원 박사수료)=서울지방경찰청 경무과(치안지도관)
▲최관호(83경행)=서울지방경찰청 서초서장
▲최해영(79경행)=경찰청 인사담당관
▲하상구(대학원 박사과정)=경찰청 수사기획과장
▲황성모(74경행)=경기지방경찰청 청문감사담당관

행사·전시

저서 '외길' 출판기념회



본회 고문 이민휘(52/56정치, 전 미주 한인회 총연합회 총회장) 동문은 저서 '외길' 출판기념회를 지난 4월25일 LA가든 스위트호텔에서 열었다. 8순연을 겸한 이날 행사에는 미주동문과 교포등 5백여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루었다.

청소년전통예술경연대회



현성스님(72/75행원, 사단법인 청소년교화연합회 총재)이 지난 5월26일 모교 중강당에서 제26회 청소년 전통예술경연대회를 갖고 새로운 희망의 세계를 열어가는 청소년들에게 꿈과 예술적 소질을 마음껏 발산하게 했다.

동국대 재단이사과 중앙승가대 총장 등을 역임했으며, 연초에 도선사 조실로 추대 되었다.

고려화불대전 봉행



해답스님(01/불원)이 지난 4월2일부터 13일 까지 예술의 전당 V 갤러리에서 '위대한 민족문화유산 고려화불 대전'을 봉행했다. 이번 대전은 7백년간 단절되었던 고려화불의 맥을 새롭게 조명했다.

훈장·수상

홍조근정훈장



심익섭(72/79행정, 모교 행정학전공 교수) 동문이 지난 3월 12일 대통령직속 지방행정체제개편 추진위원회 대회의실에서 행정학분야의 학문적 성과 및 국가와 사회발전에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받아 홍조근정훈장을 받았다.

국민훈장 동백장



현진스님(73/78승가, 여의도 포교원장)이 2009년부터 3년 동안 부패방지과 국민 권리보호를 담당하는 국가기구인 국민권의위원회 위원 활동 공로로 지난 2월27일 국민훈장 동백장 받았다. 현재 NGO 국제봉사기구인 월드머시코리아 대표이사를 맡고 있다.

취임·선출

국제펜클럽본부 이사장



이상문(68/74국문, 소설가) 동문이 지난 3월26일 열린 국제펜클럽한국본부 총회에서 제34대 이사장에 선임됐다. 1983년 '월간문학' 신인상에 단편소설 '탄흔'이 당선돼 문단에 등단했다.

모교 겸임교수를 지냈으며 대한민국 문학상, 운동주 문학상, 동국 문학상 등을 수상했다.

광주시청자미디어센터장



배승수(74/78법학) 동문이 지난 6월 12일 광주시청자미디어 센터장에 취임했다. 30여년간 광주문화 방송에서 재직하며 보도제작국장 등을 역임했으며, 광주 전남 기자협회장 등을 지냈다.

영훈고등학교 교장



황영남(80/84국교) 동문이 지난 3월22일 서울 성북구 영훈고등학교 교장으로 취임했다. 황 동문은 일선 중고등학교 교사와 강화 삼량중고 교장, 서울 세종고 교장을 역임했으며, 저서로 '한국교육 정책의 현안과 해법' '교사리더십 프로그램 I,II' 등이 있다.

대한한의사협회 회장



김필건(81/88한의, 정선한의위원장)동문이지난 3월31일 한의사협회 115년 역사상 처음으로 치러진 대한한의사협회 제58회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제41대 회장에 당선됐다.

미술협회 노원지부장



전종무(81/85미술, 문화공간 '해' 대표) 동문이 지난 3월28일 한국미술협회 노원지부 제7대 회장에 취임했다. 대한민국 미술대전 조각부문 대상을 수상했으며, 전북 새만금 상징조형물 공모에서 '약속의 터전'이 당선됐다.

삼양홀딩스 감사



홍성훈(87/82회계) 동문이 지난 3월 22일 삼양홀딩스 주주총회에서 감사로 선임됐다. 1985년 삼양사에 입사한 후 줄곧 회계와 재무 업무를 맡아왔다.

한국대학산악연맹 회장

정영목(국문73학번, 서울대 미술대 교수) 동문이 지난 3월7일 전국 6개 대학 산악부가 가입돼 있는 한국대학산악연맹 정기총회에서 제18대 회장으로 선출됐다.

개업·기타

친환경 자연섬유 제품 매장 오픈



김문영(64/69상학, 경기섬유(주) 대표이사)동문이 친환경 자연섬유인 실크(누에)한지(닥나무)인견(레이온 펄프)을 원료로 만든 양말 등 생활용품 명품 3개사 제품을 출시하고 소래포구역 북광장에 매장 '에코 뜰'을 오픈했다.

부산시 무형문화재 지정



성각스님(97/99문원, 남해 망운사 주지)이 최근 부산시 무형문화재로 지정되었다. 선서화 분야에서 문화재로 지정 등록된 것은 국내에서 성각스님이 처음이다.

백혈병 學友 위해 조혈모세포 기증 운동

1차 630명 등록...7월20일 광화문서 전국민 동참 호소

백혈병으로 투병중인 모교 최종욱(행정학과 4년)군을 돕기위한 조혈모세포 기증 등록에 같은 행정학과 친구들은 물론 일면식도 없는 학우들까지 팔을 걷어 붙였다.

절망에 빠져 있던 최씨 가족 앞에 최씨의 대학 입학 동기 이유리(행정 4년)양 등 10명이 나타났다.

이들은 페이스북과 학교 커뮤니티에 '조혈모세포 이식을 통해 백혈병 투병 중인 최종욱 학우를 살리자'는 글을 올리기 시작했다.

지난 5월27일 모교 캠퍼스에서 조혈모세포 첫 기증 행사가 열려 학우 208명이 조혈모세포 기증 의

사를 밝혔고, 다음날인 5월 28일과 지난 6월4일에 또 열려 모두 630명이 조혈모세포 기증 행사에 참여했다. 기증자들에게서 채취한 혈액은 검사를 거쳐 최씨에게 맞는지 판정을 기다리고 있다.

오는 7월20일에는 오전 9시부터 프르덴셜사회공헌재단과 함께 광화문에서 '조혈모세포 기증 기네스 도전' 행사를 개최, 최군을 위한 조혈모세포를 찾는 데 온 힘을 쏟게 된다.

후원금 입금계좌
신한은행 110-266-115523
(예금주 최종욱)

모교 개교 107주년 맞다

‘자랑스러운 동국가족상’ 등 시상



▲ 자랑스러운 동국인상을 수상한 우인보 가족

모교가 지난 5월8일로 개교 108주년을 맞았다.

지난 5월7일 오후 4시 중강당에서 거행된 개교기념식에서는 동국우수연구자상, 공로상, 자랑스러운 동국가족상, 자랑스러운 동국불자상 시상과 장기근속자에 대한 표창이 있었다.

올해 신설된 ‘동국우수연구자상’의 최우수 논문부문은 케네스 윌슨 정치외교학과 교수와 유국현 화학과 교수가 수상했다. 또 지난 한해 동안 KCI 및 국제저명저널 게재 논문업적 우수부문 분야별 수상자는 △인문=우

제선 불교학과 교수 △사회=최영균 광고홍보학과 교수 △자연=송민규물리반도체과학과 교수 △공학=박강령 전자전기공학과 교수가 각각 받았다.

올해 ‘자랑스러운 동국 가족상’은 우인보(불교학과 81학번)동문 가족으로 아버지, 배우자, 자녀, 숙부, 숙모, 외숙부, 조카, 처조카와 처조카 며느리 등 총 13명이 모두 동국대 동문으로 이 상을 받았다. 또 김상직(산업공학82)동문도 배우자 고민자(국민윤리83), 매제 정지안(산업공학82), 숙부 김태우(화학58), 숙부 김태근(통계67)

해외학술탐방장학 120명 선발

글로벌 역량 제고... 오는 6월부터 8월까지 탐방 실시

올해로 12년째 진행하고 있는 해외 학술탐방장학에 역대 최대 규모인 총 40팀, 120명의 학생들을 선발해 세계 각국으로 파견한다.

모교에서 매년 여름방학에 진행되는 해외학술탐방장학은 3명의 동일 전공, 또는 단과대학 학생들로 구성된 팀이 전공과 관련해 탐구주제를 선정하고, 세계 각국의 우수한 연구기관이나 교육시설, 대학,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기업, 사회단체 등을 탐방하는 프로젝트로 팀당 최소 200만원에서 최대 500만원까지 장학금을 지원받는다.

이번에 선발된 학생 120명은 6월부

터 8월까지 유럽 각 국과 미국, 영국, 호주 등 영미권 및 선진국을 비롯해 일본, 싱가포르, 베트남, 태국 등 아시아의 다양한 나라로 각자 자신의 전공분야 및 관심분야에 따라 탐방을 떠나게 된다.

이와는 별도로 모교는 매년 20여명의 학생을 선발해 중국 내 고구려 고토를 탐방하고 돌아오는 충무역사탐방장학, 사막화 방지를 위해 몽골에 나무심기 등의 환경보존 활동을 펼치고 돌아오는 에코탐방 장학금을 운영하고 있다.

야구부 춘계시즌 2관왕 기염



모교 야구부(감독=이건열)가 춘계 리그에 이어 전국대학야구선수권대회까지 연거푸 우승함으로써 올해 대학 야구 최강자로 떠올랐다. 모교 야구부

는 지난 5월16일 남해 스포츠파크에서 열린 제68회 전국대학선수권대회에서 전년도 우승팀 동의대를 12-6으로 꺾고 정상에 올랐다.

이에 앞서 모교 야구부는 지난 4월9일 서울 목동구장에서 폐막된 2013 회장기 전국대학야구 춘계리그에서도 흥익대를 4-0으로 제압하고 우승기를 안았다.

한편 본회 이연택 회장은 우승을 차지한 이건열 감독을 비롯한 선수들에게 2차례에 걸쳐 금일봉을 전달, 격려했다.

백담사 만해마을 모교에 기부

2만㎡땅 등 시가 200억원 상당

독립운동가이자 시인인 승려 만해 한용운(1879~1944)동문의 정신을 널리 드날린 만해마을이 모교에 기부했다.

만해는 모교 전신인 명진학교 1회 졸업생(1908) 졸업생으로 1918년 동창회의 효시인 일심회를 조직 초대회장을 지냈다.

만해사상실천선양회 이사장인 설악산 신흥사 조실 조오현(81)스님은 지난 4월3일 서울 강남구 신사동 선양회 사무실에서 김희옥 총장에게 만해마을 기증서를 전달했다.

2003년 지어져 한국건축가협회 대

상을 받은 만해마을은 2만1천㎡의 대지에 문인의 집, 만해기념관(박물관), 만해학교(교육시설), 서원보전(법당), 만해수련원, 청소년수련원 등 건물 6개동과 종각, ‘님의 침묵 광장’, 운동장, 잔디밭 등으로 이뤄져 있다.

만해마을은 시가로 2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모교는 만해마을을 거시적인 계획을 세워 교육·연구·연수를 수행할 캠퍼스로 키워 만해 스님의 민족자주정신과 불교개혁정신, 문학정신을 계승하는 국민 교육도량으로 만들 예정이다.

의료기기산업대학원 개설

9월부터 3개 분야 석사과정 운영

모교가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2013년 의료기기산업 특성화대학원 지원 사업’ 주관기관으로 선정돼 9월부터 석사 학위과정을 개설한다.

이번 사업은 국내 의료기기산업에 특화된 다(多)학제간 융합 지식과 실무 경험을 갖춘 석사급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의료기기산업학과 학위과정으로 ‘인허가 전문가 과정’ 등 3개 분야에 걸쳐 신입생을 모집하게 된다. 주관대학으로 선정된 모교는 운영

비·장학금 등으로 금년에 3억 원의 예산이 지원되며, 향후 연차평가 등을 통해 지원수준을 결정하여 2016년까지 매년 대학원 운영비를 지원받게 된다.

일산병원 우수 응급센터

모교의 동국대일산병원이 최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12년 전국 응급의료기관 평가’에서 3년 연속 우수 응급의료센터로 선정됐다.

일산 바이오메디캠퍼스 '바이오관' 착공

지하 2층, 지상 7층 규모... 2015년 1월 완공



통계학과 박주현 교수 '네이처 지네틱스' 게재

통계학과 박주현 교수가 유전자 통계 정보를 이용해 질병에 걸릴 확률을 예측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논문을 국제적으로 저명한 학술지인 Nature Genetics 4월호에 발표했다.

박 교수는 미국 국립암연구소 닐란 잔 채터지 책임연구원과 함께 연구한 '전장유전체 연관성 연구들의 폴리진 분석을 바탕으로 한 위험예측 결과 전망'이라는 논문은 유전자 통계 정보를 이용해 질병에 걸릴 확률을 예측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융합에너지 김기강 교수 그래핀 반도체 상용화 기술 개발

모교 신설학과인 융합에너지신소재공학과 김기강 교수가 국내 최초로 그래핀 반도체 상용화 기술 개발에 성공했다.

김 교수는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의 김수민 박사, 미국 메사추세츠 공과대학(MIT) Jing Kong 교수와의 공동연구로 이번 기술개발을 이뤄냈다. 특히 이번 연구 성과는 나노 분야 세계적 권위지인 나노레터스(Nano letters) 3월호에 게재되며 세계적 이목을 끌고 있다.

융합에너지 노용영 교수팀 국제학술지 총설논문 게재

융합에너지신소재공학과 노용영 교수팀이 "유기물을 이용한 유연한 광센서와 포토트랜지스터개발"에 관한 내용으로 재료분야의 세계 최고 권위지인 "Advanced Materials"(인용지수: 13.7)에 총설논문을 게재했다.

총설(review)논문은 한가지 연구분야에 대한 세계적 현황과 추세, 최신 연구결과 및 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다룬 논문을 말하는 것으로 그 분야의 세계적인 저명과학자들이 주로 신는다.

고양시 식사동에 세워지는 일산 바이오메디캠퍼스 바이오관이 지난 3월 28일 착공되었다.

바이오관은 최첨단 강의실과 교수 연구실, 실험실 등이 들어서며 연면적 2만9천230㎡에 지하 2층, 지상 7층 규모로서 오는 2015년 1월 완공된다.

지난 2011년 3월 개교한 모교 바이오메디캠퍼스는 기존의 동국대 일산 병원 주변에 의과대학과 한의과대학,

바이오시스템대학, 약학대학이 결집해 경기 북부지역 바이오·메디컬 분야의 거점대학으로 도약 중이다. 현재 산학협력관 및 강의동과 종합강의동, 약학관 등이 완공돼 각종 연구 및 교육시설이 갖춰져 있으며 약 1천여 명의 학생들이 이곳에서 수학하고 있다.

착공식은 지난 3월28일 오후 2시 동국대 이사장 정련스님과 김희옥 총

장, 송석환 총동창회 수석부회장, 최성 고양시장, 시공사인 (주)KCC의 정몽렬 대표이사를 비롯한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바이오관 건립에는 총 300억원의 공사비중 본회 고문인 정상영(57/61 법학, KCC 명예회장)동문이 100억원을 기부한다. 이번 공사는 KCC가 시공을 맡았다.

아시아 대학평가 국내 20위 · 아시아 106위

모교 순위 전년보다 올랐지만 기대에는 못미쳐

조선일보가 세계적 대학평가기관인 영국의 QS (Quacquarelli Symonds)와 공동으로 실시한 '2013 아시아 대학평가'에서 모교 순위는 국내 20위, 아시아 106위를 차지했다. 지난해 이 평가에서 모교는 국내 26위, 아시아 128위였다.

지난 5월30일 발표된 이번 평가 결과는 지난해 보다 국내 및 아시아 순위에서 약간 상승했지만 동문들의 기대에는 크게 못미친다는 반응이다.

한 동문은 "국내 순위를 봤더니 부

산대, 경북대, 전북대, 인하대, 아주대 등 지방대에도 떨어지고 있다"면서 "평가에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교수들의 연구영역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동문들의 사기를 진작시켜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5개로 나눈 학문별 학계평가에서는 사회과학·경영분야가 41위, 인문·예술분야가 65위로 나타났다. 또 국제화부문은 종합 17위로 강세를 보였으며, 이중 해외로 나간 교환학생 비율은 15위였다.

올해로 5년째를 맞이하는 이번 평가는 한국·중국·일본·인도·태국·대만·말레이시아·싱가포르·홍콩 등 아시아 16개국 457개 대학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영국의 대학평가기관인 QS가 실시해서 국내에 소개되는 대학평가는 ▲세계대학평가 학과별 평가(매년 상반기) ▲아시아대학 평가(매년 상반기) ▲세계대학 종합평가(매년 9월) 등 크게 세 가지가 있다.

신 간 안 내

'연행록 총간 증보판' 발간

임기중 (59국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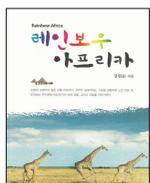
'수로 연행도' 13종 등 총 101종의 연행(중국 연경으로 가는 사신 행차)관련 자료를 추가한 '연행록 총간 증보판'을 펴냈다.

'수로 연행도'는 조선시대 사신과 동행한 화공이 바닷길로 중국에 갈 때 수로와 지형, 위험지역을 그림에 담은 것이다.

1617~1636년 후금을 세운 건주 여진의 등장으로 육로가 막히자 뱃길로 가며 만든 것이다. 증보판은 '열하일기 이본' 19종도 담았다.

레인보우 아프리카

강원순 (78행원)



"흔히 '블랙 아프리카'라고 말하지만 나는 '레인보우 아프리카'라고 말하고 싶다."

지난날 아프리카에서의 저자의 경험을 통해 사람들이 쉽게 접할 수 없는 아프리카의 역사와 정치, 사회, 문화 전반에 대하여 조망하고 독자들이 알기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펼쳐내고 있다. 강 동문은 조달청, 여수세계박람회 조직위에서 고위공무원으로 근무하였으며, 현재 한국연합복권(주) 대표이사로 있다.

달리는 청춘의 시

윤승철 (문예창작 3년)



지난해 이집트 사하라, 중국 고비, 칠레 아타카마사막과 남극에 이르는 총1,250km 극지 마라톤에서 세계 최연소 기록을 세운 저자의 도전과 응전을 자작시로 뽐내었다.

스무살 청년은 사막을 달리는 것은 중독이지만 단기간내 다이어트 효과도 볼 수 있고, 새로운 사람들과의 만남을 가져오고, 또 사막과 남극은 아무런 생각을 요구하지 않기에 매력적이라고 말한다.

사랑과 정성에 감사드립니다.

각종 회비와 기금은 동국발전을 위해 소중히 쓰이고 있습니다.

· 회비 · 기금 납부시 성명 · 입학년도 · 학과를 필히 명시해 주십시오. (단위:만원)

각종회비 납부안내

- 국민은행 006001-04-237869
- 외환은행 150-22-01536-0
- 예 금 주 : 동국대학교총동창회

〈2013년 2월 25일 ~ 2013년 6월 21일 접수분〉

금액 · 성명 가나다순

고 문

 김동정 (53법학) 고 문 100만원	 김재기 (56경제) 고 문 100만원	 김희욱 (68법학) 고 문 100만원	 김희형 (56정치) 고 문 100만원	 문태식 (46사학) 고 문 100만원	 박종운 (56경제) 고 문 100만원	 안채란 (48국문) 고 문 100만원	 윤일균 (67행정) 고 문 100만원	 지승님 (09불원) 고 문 100만원	 전순표 (53농학) 고 문 100만원
--	--	--	--	---	--	--	--	--	--

부 회 장

 고성대 (55법학) 부회장 100만원	 김규태 (93행정) 부회장 100만원	 김배근 (58경제) 부회장 100만원	 김성재 (58정치) 부회장 100만원	 김영순 (65화학) 부회장 100만원	 김진문 (64경영) 부회장 100만원	 김진선 (71행정) 부회장 100만원	 김충석 (61상학) 부회장 100만원	 김형중 (79불교) 부회장 100만원	 김환배 (68연료공학) 부회장 100만원
 나등연 (80무역) 부회장 100만원	 노준식 (58정치) 부회장 100만원	 민병덕 (74경영) 부회장 100만원	 박동열 (73행정) 부회장 100만원	 박용재 (66법학) 부회장 100만원	 범조스님 (70불교) 부회장 100만원	 범타스님 (67인철) 부회장 100만원	 변기태 (79경영) 부회장 200만원	 서영준 (64법학) 부회장 100만원	 성해스님 (88교원) 부회장 100만원
 심경모 (57경영) 부회장 100만원	 신동수 (71경영) 부회장 100만원	 양용호 (04문원) 부회장 100만원	 영담스님 (74승가) 부회장 100만원	 윤미정 (81수교) 부회장 100만원	 윤중기 (79경영) 부회장 100만원	 이시우 (91행정) 부회장 100만원	 이재창 (00경영) 부회장 100만원	 이중길 (71경제) 부회장 100만원	 이창규 (62경영) 부회장 100만원
 이희경 (68경영) 부회장 100만원	 자광스님 (64인철) 부회장 100만원	 장민수 (72농경) 부회장 100만원	 정순도 (74경영) 부회장 100만원	 전종무 (81미술) 부회장 100만원	 정진태 (00행정) 부회장 100만원	 최응렬 (79경영) 부회장 100만원	 지규원 (71정치) 부회장 100만원	특별회비	
				 김환배 (68연료공학) 부회장 100만원					

고문 분담금	▲윤청광(59 영문) 30	▲김광철(76 경영) 20	▲손문영(69 토목) 20	▲차문희(72 정치) 20	▲김영필(86 정치) 10	▲서대성(83 경영) 10	▲이병노(86 경영) 10
▲신국주(46 사학) 30	▲윤형두(55 법학) 30	▲김덕현(71 농학) 20	▲손일환(93 사대원) 20	▲최영철(95 불원) 20	▲김원규(89 불교) 10	▲서동부(92 사대원) 10	▲이상구(81 인철) 10
▲이민희(52 정치) 50	▲이광세(86 경영) 30	▲김동읍(80 국문) 20	▲신명식(95 언원) 20	▲최용환(64 농학) 20	▲김용락(69 행정) 10	▲서동필(71 경제) 10	▲이상복(71 전자) 10
	▲이기화(57 경제) 30	▲김만진(90 경영) 20	▲양규철(64 농학) 20	▲최우봉(79 전산) 20	▲김인환(84 법학) 10	▲성순경(원탁)(93 불원) 10	▲이상연(81 전기) 10
	▲이순우(60 경제) 30	▲김문선(79 전자) 20	▲오만식(90 언원) 20	▲최중수(08 사대원) 20	▲김재홍(56 경제) 10	▲송경옥(84 연영) 10	▲이승복(85 경영) 10
	▲이영재(61 불교) 30	▲김사성(69 국교) 20	▲오학선(92 행정) 20	▲태진스님(98 불원) 20	▲김정길(64 인철) 10	▲신만근(63 경영) 10	▲이인배(92 경영) 10
	▲이용성(59 법학) 30	▲김사홍(79 행정) 20	▲유원표(75 통계) 20	▲하광식(71 법학) 20	▲김진용(58 경제) 10	▲신창식(80 경제) 10	▲이인진(60 법학) 10
	▲이재옥(60 정치) 30	▲김상규(69 경영) 20	▲유지홍(70 정치) 20	▲하만정(90 경영) 20	▲김태용(91 행정) 10	▲신현태(54 경제) 10	▲이재국(81 건축) 10
	▲정인악(55 화학) 30	▲김영준(66 행정) 20	▲유창섭(60 행정) 20	▲허봉주(87 경영) 20	▲나영수(63 국문) 10	▲신화섭(84 화학) 10	▲이재영(74 경영) 10
	▲조희영(59 경영) 30	▲김용구(70 농경) 20	▲윤만진(94 경영) 20	▲허창식(75 영문) 20	▲나채문(99 산원) 10	▲안병민(69 도공) 10	▲이제근(69 경제) 10
	▲종상스님(86 행정) 30	▲김용환(71 법학) 20	▲이상명(83 경영) 20	▲홍선기(69 정치) 20	▲무염스님(92 불원) 10	▲양부선(94 불교) 10	▲이창학(80 영문) 10
	▲지혜식(59 불교) 30	▲김운락(00 법학) 20	▲이성환(75 경영) 20	▲황성모(74 경영) 20	▲민경봉(60 법학) 10	▲양수성(61 경영) 10	▲이천기(64 농경) 10
	▲최세화(48 국문) 30	▲김윤중(66 정치) 20	▲이용훈(72 농생) 20		▲민해(74 국교) 10	▲염동삼(08 불원) 10	▲이철구(81 국사) 10
	▲허길남(63 응생) 30	▲김중찬(94 경영) 20	▲이원희(86 경영) 20	이사 회비	▲박대은(97 사대원) 10	▲오원배(72 미술) 10	▲이철종(77 토목) 10
	▲허천택(56 영문) 30	▲김중호(80 국교) 20	▲이윤훈(73 정치) 20	▲강태선(07 경영) 10	▲박봉준(77 경제) 10	▲원종희(76 농경) 10	▲이춘자(95 경영) 10
		▲김태현(84 불교) 20	▲이재용(64 상학) 20	▲고경천(80 경제) 10	▲박삼서(85 경제) 10	▲윤재수(00 사대원) 10	▲이태영(51 사학) 10
	부회장 회비	▲김희수(00 사대원) 20	▲이재환(98 사대원) 20	▲권중원(64 상학) 10	▲박수열(89 행정) 10	▲윤종원(81 한의) 10	▲이학균(77 사교) 10
	▲자용스님(91 불원) 30	▲노진명(73 토목) 20	▲이점구(96 산원) 20	▲길욱(70 행정) 10	▲박영목(91 산업안전) 10	▲이갑채(00 사대원) 10	▲임식(73 체교) 10
	▲현각스님(78 인철) 50	▲류승희(65 경영) 20	▲이재용(98 사대원) 20	▲김규태(48 영문) 10	▲박준호(73 경영) 10	▲이갑채(00 사대원) 10	▲임화(51 법학) 10
		▲민홍희(68 법학) 20	▲이준용(04 행정) 20	▲김만영(82 경영) 10	▲박찬운(67 경영) 10	▲이경구(58 법학) 10	▲장대중(68 경영) 10
	상임이사 회비	▲박상관(79 행정) 20	▲이필영(63 사학) 20	▲김남영(82 경영) 10	▲박학수(64 경영) 10	▲이경범(65 경영) 10	▲장전배(98 대학원) 10
	▲각현스님(85 행정) 20	▲박재신(77 공업경영) 10	▲임규영(68 경제) 20	▲김명희(85 미술) 10	▲박현우(00 사대원) 10	▲이관호(85 교육) 10	▲전병용(77 경영) 10
	▲강병웅(03 사대원) 20	▲박종세(92 경영) 20	▲정미숙(84 연영) 20	▲김상종(62 농경) 10	▲박흥서(68 통계) 10	▲이권학(86 인철) 10	▲정세영(56 법학) 10
	▲고현석(76 정치) 20	▲박하서(97 사대원) 20	▲정재기(64 정치) 20	▲김영린(64 법학) 10	▲배보영(97 불원) 10	▲이길수(79 정치) 10	▲정해종(05 경영) 10
	▲구윤관(74 회계) 20	▲방재홍(79 경영) 20	▲정준호(95 행정) 20	▲김영석(87 법학) 10	▲배용만(72 체교) 10	▲이남주(87 행정) 10	▲제정스님(89 대학원) 10
	▲권수구(75 국문) 20	▲방조원(77 행정) 20	▲정지천(79 한의) 20	▲김영운(71 경영) 10	▲배종하(88 경영) 10	▲이두환(75 경영) 10	▲조남진(73 무역) 10
		▲선일스님(73 인철) 20	▲조기홍(76 정치) 20	▲김영윤(76 정치) 10	▲백경선(80 불교) 10	▲이명욱(65 행정) 10	▲조종진(54 정치) 10
		▲성백행(62 경영) 20	▲조종미(81 교육) 20		▲백대은(70 전자) 10	▲이문규(78 경영) 10	▲조창원(55 경제) 10

▲조흥기(58 영문)	10	▲기인종(69 경제)	2	▲김성문(08 철학논술)	2	▲김중선(78 공업경영)	2	▲대적사	2	▲박인수(98 수교)	3	▲서승오(57 법학)	2	▲안정상(85 회공)	2
▲지종스님(07 한국음악)	10	▲길승진(85 지교)	2	▲김성수(80 무역)	2	▲김중호	2	▲덕운사	2	▲박장서(57 사학)	2	▲서영섭(79 회계)	2	▲안태호(85 교육)	2
▲진병길(84 국사)	10	▲김강일(75 사학)	2	▲김성열(92 경영)	2	▲김중환(61 불교)	2	▲덕현스님(89 불교)	2	▲박재근(01 불원)	2	▲서윤하(82 법학)	2	▲안한상(66 국문)	2
▲진재경(73 영문)	10	▲김강호(58 경제)	2	▲김세만(82 경영)	2	▲김주현(91 법학)	2	▲도덕암	2	▲박재용(82 국문)	2	▲서정록(68 수학)	2	▲안형균(92 행원)	2
▲진창훈(66 상학)	10	▲김경미(98 불원)	2	▲김세정(05 영문)	2	▲김준근(89 화학)	2	▲도상열(54 수학)	2	▲박재원(57 경제)	2	▲설안스님(00 대학원)	2	▲안희백(71 토목)	2
▲차진구(78 건축)	10	▲김경석(58 경제)	2	▲김순(87 의학)	2	▲김준현(09 사대원)	2	▲도윤호(90 행원)	2	▲박재필(71 경제)	2	▲성기호(61 상학)	2	▲약산사	2
▲차형천(72 정의)	10	▲김경선(82 한의)	2	▲김순제(52 경제)	2	▲김진근(78 토목)	2	▲도정인(78 수학)	2	▲박정규(84 경영)	2	▲성원식(83 법학)	2	▲양석홍(81 경영)	2
▲최석권(84 법학)	10	▲김광민(85 행정)	2	▲김슬기(01 경제)	2	▲김진수(78 행정)	2	▲동명사	2	▲박종철(98 문원)	2	▲송경중(77 토목)	2	▲양승철(56 법학)	2
▲최성영(83 경영)	10	▲김광섭(61 법학)	2	▲김승기(00 대학원)	2	▲김진영(79 전자)	2	▲동명사	2	▲박준호(83 회계)	2	▲손규현(85 경영)	2	▲양우원(69 화학)	2
▲최용춘(73 법학)	10	▲김광영(59 경영)	2	▲김승태(72 정의)	2	▲김진원(61 경영)	2	▲동명사	2	▲박지영(96 행정)	2	▲손병성(80 화학)	2	▲양원모(05 사대원)	2
▲최해수(05 사대원)	10	▲김기일(73 전산)	2	▲김승훈(65 화학)	2	▲김진자(92 불교아동)	2	▲동명사	2	▲박준재(60 경영)	2	▲손상필(62 경제)	2	▲양중모(64 국문)	2
▲추교춘(02 사대원)	10	▲김기주(79 국문)	2	▲김시현(60 인학)	2	▲김찬동(96 경영)	2	▲류근선(78 회계)	2	▲박태강(64 경영)	2	▲손세명(68 법학)	2	▲양천암	2
▲하한기(77 건축)	10	▲김기표(73 경제)	2	▲김양태(85 무역)	2	▲김창식(63 국문)	2	▲류기용(07 언원)	2	▲박태원(65 국문)	2	▲손시익(97 언원)	2	▲양희성(82 경영)	2
▲한규범(78 경영)	10	▲김낙주(63 법학)	2	▲김여진(03 영문)	2	▲김재연(64 법학)	2	▲류시규(72 수교)	2	▲박판길(85 행원)	2	▲손해순(83 불교)	2	▲양중호(56 법학)	2
▲허정수(80 경제)	10	▲김낙현(82 체교)	2	▲김영균(81 전기)	2	▲김창만(95 문원)	2	▲류영현(71 국교)	2	▲박현우(00 사대원)	2	▲송기현(92 회계)	2	▲여은규(55 영문)	2
▲현학진(86 경제)	10	▲김남선(72 정의)	2	▲김영기(84 경영)	2	▲김춘수(81 회공)	2	▲류지선(72 행정)	2	▲박형원(81 영문)	2	▲송기훈(65 경제)	2	▲여인근(58 입학)	2
		▲김농주(83 경영)	2	▲김영배(51 국문)	2	▲김춘수(85 산공)	2	▲맹주옥(83 행정)	2	▲박호근(74 무역)	2	▲송병욱(67 인철)	2	▲여환준(67 법학)	2
		▲김대철(85 선학)	2	▲김영봉(53 농학)	2	▲김태성(59 물리)	2	▲명선스님(74 행원)	2	▲박호현(74 사학)	2	▲송부용(78 농경)	2	▲연화사	2
		▲김대철(69 정의)	2	▲김영주(67 구축)	2	▲김태형(01 국악)	2	▲무량사	2	▲박화재(05 경영)	2	▲송성환(66 경제)	2	▲영선사	2
		▲김동대(58 경제)	2	▲김영진(78 도시행정)	2	▲김택유(79 경제)	2	▲무량스님(95 불원)	2	▲박희선(56 화학)	2	▲송영배(64 상학)	2	▲오도환(74 사학)	2
		▲김동완(64 연영)	2	▲김영호(74 회계)	2	▲김택근(66 경영)	2	▲문경식(92 경영)	2	▲박희익(63 상학)	2	▲송용순(83 철학)	2	▲오동원(78 법학)	2
		▲김동욱(74 농생)	2	▲김영호(99 경영)	2	▲김한기(03 행원)	2	▲문계술(88 불교아동)	2	▲반금환(60 법학)	2	▲송용운(64 행정)	2	▲오두수(92 경영)	2
		▲김동원(60 정치)	2	▲김영환(58 경제)	2	▲김한성(85 한의)	2	▲문공식(66 연영)	2	▲반용사	2	▲송윤용(84 행원)	2	▲오무용(92 불원)	2
		▲김동민(62 화학)	2	▲김오중(51 경제)	2	▲김한정(79 물리)	2	▲문대성(56 정치)	2	▲배만호(83 행정)	2	▲송재신(58 법학)	2	▲오성태(86 경영)	2
		▲김동준(80 경영)	2	▲김완석(81 농학)	2	▲김한진(87 법학)	2	▲문대전(67 식공)	2	▲배상덕(94 북한)	2	▲송제면(67 경영)	2	▲오세청(60 상학)	2
		▲김동철(71 건축)	2	▲김용근(76 공업경영)	2	▲김현팔(64 국문)	2	▲문수암	2	▲배용성(64 경제)	2	▲송호택(82 경영)	2	▲오수경(61 수학)	2
		▲김만수(80 승가)	2	▲김용기(61 화학)	2	▲김현호(56 영문)	2	▲문유희(56 국문)	2	▲배장식(78 전자)	2	▲수원사	2	▲오인종(92 경영)	2
		▲김명석(85 정의)	2	▲김용민(78 토목)	2	▲김현호(92 일본)	2	▲문재연(79 일본)	2	▲백길동(85 인철)	2	▲신경애(81 영문)	2	▲오하석(89 한의)	2
		▲김명희(59 사학)	2	▲김용석(82 경제)	2	▲김형상(78 물리)	2	▲문창규(84 관광경영)	2	▲백련사	2	▲신덕근(70 무역)	2	▲오희영(75 조경)	2
		▲김문관(80 회공)	2	▲김용설(90 화학)	2	▲김형석(93 행원)	2	▲문창수(01 정보통신)	2	▲백승만(63 국문)	2	▲신범철(55 물리)	2	▲왕수일(83 무역)	2
		▲김미란	2	▲김용욱(84 경제)	2	▲김형수(02 언원)	2	▲민병욱(71 건축)	2	▲백승운(87 경영)	2	▲신석희(60 사학)	2	▲왕춘사	2
		▲김민수(84 경영)	2	▲김용욱(95 컴공)	2	▲김홍렬(59 경영)	2	▲민병진(57 정치)	2	▲백용운(82 행원)	2	▲신승갑(64 통계)	2	▲우리절	2
		▲김민지(86 연영)	2	▲김용운(95 문원)	2	▲김홍철(60 경제)	2	▲민수영(59 정치)	2	▲백운사	2	▲신영철(57 국문)	2	▲우중환(84 회계)	2
		▲김민지(04 한의)	2	▲김용홍(64 행정)	2	▲김환규(60 정치)	2	▲민웅식(57 경제)	2	▲백준우(99 체교)	2	▲신영남(72 무역)	2	▲우정환(89 경제)	2
		▲김재선(78 행정)	2	▲김원식(74 경영)	3	▲김후석(72 경영)	2	▲민현석(61 국문)	2	▲백재원(67 응생)	2	▲신용우(56 경제)	2	▲원경스님(95 불원)	2
		▲김태복(69 식공)	2	▲김원열(94 행원)	2	▲김희석(03 경영)	2	▲박광래(58 경제)	2	▲변우근(67 법학)	2	▲신용준(60 국문)	2	▲원준대(61 정치)	2
		▲김형중(64 국문)	2	▲김원우(85 지교)	2	▲김희자(89 미술)	2	▲박노훈(72 사교)	2	▲변윤섭(65 정의)	2	▲신용현(80 한의)	2	▲월봉사	2
		▲김희선(86 의학)	2	▲김원태(79 통계)	2	▲김희환(58 입학)	2	▲박덕용(03 사대원)	2	▲변재희(84 행원)	2	▲신원사	2	▲유기봉(73 농학)	2
		▲김기태(79 회공)	2	▲김원홍(86 경영)	2	▲나기원(64 경제)	2	▲박덕준(88 경영)	2	▲변준연(86 토목)	2	▲신재현(58 영문)	2	▲유동식(73 식공)	2
		▲김영대(78 화학)	2	▲김유련(71 경영)	2	▲나덕찬(84 회계)	2	▲박동명(07 행원)	2	▲변훈길(71 행원)	2	▲신진우(83 경제)	2	▲유명호(60 영문)	2
		▲김희준(88 정의)	2	▲김윤기(64 입학)	2	▲나언표(56 경제)	2	▲박동해(58 법학)	2	▲보광사	2	▲신철호(83 회공)	2	▲유상갑(64 법학)	2
		▲곽노경(73 경제)	2	▲김윤남(92 경영)	2	▲낙가사	2	▲박두호(63 경영)	2	▲보덕스님(05 불문원)	2	▲신총기(70 행정)	2	▲유상빈(70 행정)	2
		▲곽상춘(90 언원)	2	▲김윤섭(66 행원)	2	▲남계동(64 입학)	2	▲박래학(61 경제)	2	▲보리암	2	▲신태환(63 법학)	2	▲유시우(87 정의)	2
		▲곽영철(92 행원)	2	▲김부남(63 식공)	2	▲남병국(61 법학)	2	▲박미서(06 국악)	2	▲보림사	2	▲심광보(58 물리)	2	▲유영민(00 법학)	2
		▲관음사	2	▲김부동(88 교원)	2	▲남시혁(54 정치)	2	▲박병환(82 물리)	2	▲보문사	2	▲심경용(67 법학)	2	▲유영식(55 법학)	2
		▲관음사	2	▲김상기(94 불원)	2	▲남장사	2	▲박부남(98 불원)	2	▲보천사	2	▲심규선(61 물리)	2	▲유영호(57 경제)	2
		▲광용스님	2	▲김상돈(96 반도체)	2	▲남택운(72 회계)	2	▲박상훈(90 경제)	2	▲북구암	2	▲심명호(67 응생)	2	▲유주순(83 회계)	2
		▲구관민(87 의학)	2	▲김상래(79 농학)	2	▲내원사	2	▲박성경(98 경영)	2	▲봉암사	2	▲심복사	2	▲유지남(70 농학)	2
		▲국태영(95 전기)	2	▲김상배(68 공업관리)	2	▲노기철(89 경영)	2	▲박영길(62 화학)	2	▲불주사	2	▲심상익(69 구축)	2	▲유학규(05 정보경영)	2
		▲권범기(97 행원)	2	▲김상욱(90 화학)	2	▲노만사	2	▲박영관(88 국교)	2	▲사리암	2	▲심성희(93 국문)	2	▲유환찬(74 정의)	2
		▲권순일(79 경영)	2	▲김상일(83 농학)	2	▲노명옥(73 가교)	2	▲박영록(68 경영)	2	▲사현스님(02 불원)	2	▲안군선(85 회계)	2	▲유희민(07 행원)	2
		▲권영순(80 전산)	2	▲김상일(92 의학)	2	▲노수길(65 경영)	2	▲박영희(89 경영)	2	▲삼보사	2	▲안길준(85 행정)	2	▲윤구식(07 교원)	2
		▲권정순(70 사교)	2	▲김석래(79 전기)	2	▲노영환(72 토목)	2	▲박완순(85 영문)	2	▲삼성암	2	▲안문기(84 법학)	2	▲윤승식(90 대학원)	2
		▲권정의(98 대학원)	2	▲김석중(02 대학원)	2	▲노재한(71 식공)	2	▲박우수(93 행원)	2	▲서거원(60 경제)	2	▲안병소(64 정의)	2	▲윤영길(61 상학)	2
		▲권준안(80 회계)	10	▲김석회(84 무역)	2	▲노창호(02 문예창작)	2	▲박우규(93 행원)	2	▲서동일(84 경영)	2	▲안병수(58 경제)	2	▲윤완수(88 불교)	2
		▲권태상(77 국교)	2	▲김선희(86 가교)	2	▲노창희(65 법학)	2	▲박우규(05 건축)	2	▲서병수(58 경제)	2	▲안병조(63 경제)	2	▲윤재성(61 식공)	2
		▲권태석(74 영문)	2	▲김성광(65 상학)	2	▲대각사	2	▲박윤식(79 사회)	2	▲서보철(90 회공)	2	▲안순환(66 상학)	2	▲윤종욱(79 통계)	2
		▲권학찬(08 경영)	2	▲김성규(56 경제)	2	▲대용스님(88 선학)	2	▲박은주(00 경영)	2	▲서분도(82 국민윤리)	2	▲안심사	2	▲윤종욱(81 행원)	2
		▲금융사	2	▲김성근(77 행정)	2	▲대용스님(98 불원)	2	▲박은철(72 무역)	2	▲서석일(00 사대원)	2	▲안재권(78 토목)	2	▲윤중환(96 물리)	2

일반회비

▲윤준옥(02 불원) 2	▲이승현(59 정치) 2	▲이창근(83 농경) 2	▲전은영(70 화학) 2	▲조일권(55 법학) 2	▲최현락(99 대학원) 2	▲황진희(83 환경조경) 2	△김용임(83 국민윤리)
▲윤찬희(78 화공) 2	▲이승후(88 경원) 2	▲이천봉(70 전기) 2	▲전익흥(85 법학) 2	▲조정은(03 역교) 2	▲최흥길(58 경제) 2	▲황태영(83 행원) 2	△김웅(82 한문)
▲윤화석(70 물리) 2	▲이신호(88 경원) 22000	▲이철웅(81 한의) 2	▲전평수(92 경영) 2	▲조정현(01 교원) 2	▲최희규(90 생물) 2	▲황해룡(82 국교) 2	△김재윤(91 체교)
▲은세곤(57 사학) 2	▲이열경(70 무역) 2	▲이철희(79 전기) 2	▲정구인(62 국문) 2	▲조중구(06 행원) 2	▲철장사 2	▲황화준(89 사대원) 2	△김정현(90 국민윤리)
▲이경우(48 국문) 2	▲이영(79 토목) 2	▲이춘우(78 농학) 2	▲정규수(81 건축) 2	▲조준수(87 경원) 2	▲편유장(88 의학) 2	▲회광선원 2	△남상돈(85 수교)
▲이경우(58 경제) 2	▲이영석(59 국문) 2	▲이충환(71 통계) 2	▲정기춘(78 회계) 2	▲조철규(79 승가) 2	▲편재식(98 행원) 2		△노여진(03 국교)
▲이계연(83 가교) 2	▲이영숙(69 사교) 2	▲이태한(66 경영) 2	▲정명사 2	▲조통달(94 문원) 2	▲표대규(86 정의) 2		△박상재(87 행정)
▲이계중(70 입학) 2	▲이영재(81 법학) 2	▲이택권(67 불교) 2	▲정범모(06 전자) 2	▲조한석(06 경영) 2	▲하림스님(88 선학) 2		△박수정(85 국문)
▲이광섭(65 상학) 2	▲이영찬(72 농학) 2	▲이택선(69 무역) 2	▲정규규(84 전산) 2	▲조한선(89 회계) 2	▲하미정(85 국교) 2		△박종부(77 국교)
▲이광열(89 행원) 2	▲이영환(88 경원) 2	▲이풍규(59 법학) 2	▲정병철(73 건축) 2	▲조한영(62 법학) 2	▲하민호(78 전자) 2		△박승선(88 일문)
▲이규용(87 경영) 2	▲이영희(01 불원) 2	▲이필규(65 응생) 2	▲정상용(69 정의) 2	▲조한운(61 상학) 2	▲하성주(87 경영) 2	▲박종윤(56 경제) 200	△신개복(83 국사교육)
▲이근욱(65 연영) 2	▲이옥동(82 영문) 2	▲이학문(55 경제) 2	▲정석원(76 경제) 2	▲조현철(77 화공) 2	▲하혜순(92 불원) 2	50만×4회(누계:550만원)	△안정은(98 행정)
▲이기섭(85 사회) 2	▲이완규(05 문원) 2	▲이학설(56 법학) 2	▲정수호(10 지교) 2	▲조현행(75 행원) 2	▲학방암 2	▲임영수(71 무역) 15	△양경숙(97 교원)
▲이기순(69 국문) 2	▲이용구(71 농학) 2	▲이해규(57 법학) 2	▲정순봉(53 법학) 2	▲조휘진(79 국사교육) 2	▲한도수(58 경제) 2	5만×3회(누계:50만원)	△염정식(90 수교)
▲이기영(78 경제) 2	▲이용국(74 경영) 2	▲이해웅(56 생물) 2	▲정영자(03 사대원) 2	▲조희수(69 행정) 2	▲한성일(94 법학) 2		△우인보(81 불교)
▲이기우(89 경제) 2	▲이용식(60 농학) 2	▲이호택(69 수교) 2	▲정옥윤(09 사대원) 2	▲주상길(98 경원) 2	▲한예식(57 경제) 2		△유세희(86 농생)
▲이기원(84 경영) 2	▲이우진(89 입학) 2	▲이홍우(62 농경) 2	▲정용방(82 농경) 2	▲지상사 2	▲한운섭(68 경영) 2		△유승현(02 국교)
▲이기출(81 경영) 2	▲이윤욱(83 경제) 2	▲이환근(67 도공) 2	▲정운섭(57 사학) 2	▲지용종(76 건축) 2	▲한정우(71 국교) 2	▲김명길(70 공업경영) 20	△유태선(02 체교)
▲이기학(82 경영) 2	▲이윤철(88 경영) 2	▲이환근(82 수교) 2	▲정우식(86 법학) 5	▲지중스님(07 한국음악) 2	▲한지연(87 불교아동) 2	5만×4회(누계:95만원)	△이기근(76 수학)
▲이낙호(92 행원) 2	▲이은섭(58 경제) 2	▲이효영(06 법학) 2	▲정일원(04 국제통상) 2	▲진성기(99 행원) 2	▲한철의(80 전산) 2	▲김철완(88 법학) 40	△이연숙(78 사교)
▲이남영(94 행원) 2	▲이은준(59 법학) 2	▲이훈상(88 법학) 2	▲정일주(96 문원) 2	▲진성스님(76 승가) 2	▲한홍희(92 검공) 2	10만×4회(누계:190만원)	△이정미(80 영문)
▲이대수(92 행원) 2	▲이은진(79 교원) 2	▲이형식(61 영문) 2	▲정일준(75 경제) 2	▲진홍식(59 법학) 2	▲한혜정 2	▲민현호(82 영문) 8	△이해주(96 역교)
▲이대영(93 행원) 2	▲이인선(72 화공) 2	▲일호스님 2	▲정재운(73 정의) 2	▲채기남(74 영문) 2	▲허관식(78 행정) 2	2만×4회(누계:16만원)	△전정란(81 농생)
▲이덕수 2	▲이인형(76 입학) 2	▲임경섭(57 사학) 2	▲정정식(85 전산) 2	▲채만규(86 미술) 2	▲허복(74 승가) 2	▲박상신(79 화학) 4	△조대정(92 국민윤리)
▲이동식(83 무역) 2	▲이일현(66 물리) 2	▲임구영(83 법학) 2	▲정중철(87 농생) 2	▲채무홍(58 농학) 2	▲허장민(64 정의) 2	1만×4회(누계:8만원)	△하지연(97 일문)
▲이동원 2	▲이일철(87 행원) 2	▲임병각(76 건축) 2	▲정진태(83 경영) 2	▲채범기(83 행정) 2	▲허환(58 경제) 2	▲박용규(05 건축) 3	△한재수(73 수교)
▲이득현(72 국교) 2	▲이장길(56 사학) 2	▲임병원(79 한의) 2	▲정진환 2	▲채수일(57 정치) 2	▲현승유(65 경제) 2	1만×3회(누계:6만원)	△황보성(99 국교)
▲이련(64 국문) 2	▲이장희(61 농학) 2	▲임양섭(83 사학) 2	▲정찬교(72 무역) 2	▲채정안(07 영문) 2	▲현영대(81 건축) 2	▲송재훈(98 경제) 6	총 780,000원
▲이만수(81 체교) 2	▲이재동(97 불원) 2	▲임영수(71 무역) 2	▲정창숙(94 교원) 2	▲천성복(81 회계) 2	▲현용기(81 행정) 2	2만×3회(누계:10만원)	
▲이명우(91 불원) 2	▲이재복(65 물리) 2	▲임우택(82 경영) 2	▲정창준(68 경영) 2	▲철은스님(86 교원) 2	▲현정스님(97 불원) 2	▲안한성(66 국문) 4	
▲이명규(70 수교) 2	▲이재술(77 행정) 2	▲임운기(60 농학) 2	▲정춘덕(55 법학) 2	▲최공림(82 지교) 2	▲현진스님(83 선학) 2	1만×4회(누계:19만원)	
▲이문현(67 경영) 2	▲이재식(73 건축) 2	▲임의석(79 수학) 2	▲정태수(69 법학) 2	▲최낙석(59 경제) 2	▲해안스님(96 선학) 2	▲이종근(71 물리) 8	
▲이범찬(82 행원) 2	▲이재원(72 미술) 2	▲임인규(78 승가) 2	▲정태수(72 행원) 2	▲최동수(53 경제) 2	▲호암스님(07 한국음악) 20	2만×4회(누계:14만원)	
▲이병길(67 화학) 2	▲이정원(72 미술) 2	▲임일남(79 교원) 2	▲정판섭(68 경제) 2	▲최동욱(76 화공) 2	▲홍경식(80 행정) 2	▲한인만(64 국문) 8	
▲이병석(57 국문) 2	▲이정목(86 무역) 2	▲임재천(74 영문) 2	▲정한영(94 행원) 2	▲최동지(75 토목) 2	▲홍기운(82 경영) 2	2만×4회(누계:12만원)	
▲이봉근(56 법학) 2	▲이정자(67 불교) 2	▲임종림(82 철학) 2	▲정현정(91 행정) 2	▲최무정(80 행원) 2	▲홍기표(58 정치) 2	▲현용기(81 행정) 40	▲일반회비(3만원×17명)
▲이부성(63 경제) 2	▲이정진(81 건축) 2	▲임종출(81 화공) 2	▲정호영(78 건축) 2	▲최병윤(82 경영) 2	▲홍면우(68 자동차어) 2	10만×4회(누계:80만원)	△김기현(79 국사교육)
▲이삼봉(57 사학) 2	▲이정호(74 경영) 2	▲임종홍(86 경원) 2	▲정훈열(82 법학) 2	▲최봉석(92 정의) 2	▲홍법사 2		△김상민(92 응생)
▲이삼봉(83 산공) 2	▲이정훈(60 법학) 2	▲임태규(56 경제) 2	▲정홍락(07 대학원) 2	▲최선우(69 경영) 2	▲홍서기(85 경영) 2		△동명희(83 농생)
▲이상용(75 건축) 2	▲이제일(83 경영) 2	▲자비사 2	▲정홍진(95 불원) 2	▲최성호(81 법학) 2	▲홍양희(79 행원) 2		△문영은(82 국교)
▲이상윤(71 건축) 2	▲이종근(95 경제) 2	▲장경식(75 사교) 2	▲제순모(97 검공) 2	▲최성훈(03 전자) 2	▲홍영자(64 국문) 2	▲나채문(99 산원) 4	△박인수(98 수교)
▲이상현(79 경영) 2	▲이종대(77 무역) 2	▲장경웅(61 상학) 2	▲조규영(64 경제) 2	▲최수영(73 행원) 2	▲홍영준(61 경제) 2	1만×4회(누계:15만원)	△서행원(78 국사교육)
▲이상호(60 국문) 10	▲이종만(05 국제통상) 2	▲장광수(80 경영) 2	▲조기홍(76 정의) 2	▲최영란(86 지교) 2	▲홍윤식(58 국문) 2	▲최철호(86 산공) 4	△선은호(96 화학)
▲이상훈 2	▲이종범(72 전산) 2	▲장명근(58 법학) 2	▲조길연(65 경영) 2	▲최영숙(96 영문) 2	▲홍익식(86 경영) 2	1만×4회(누계:8만원)	△신민정(03 미술)
▲이석구(86 경제) 2	▲이종복(55 불교) 2	▲장봉기(87 교원) 2	▲조덕빈(91 수학) 2	▲최영안(63 국문) 2	▲홍익표(73 건축) 2		△안주희(81 불교)
▲이석봉(86 행원) 2	▲이종연(85 농경) 2	▲장비성 2	▲조동현(64 농경) 2	▲최완철(59 경제) 2	▲홍제스님(84 선학) 2		△안치웅(81 사교)
▲이석원(76 전기) 2	▲이종인(03 대학원) 2	▲장석울(70 식공) 2	▲조만수(70 경영) 2	▲최인걸(91 대학원) 2	▲홍종표(94 행원) 2		△윤해영(73 국교)
▲이석준(55 정치) 2	▲이종찬(56 국문) 2	▲장소천(86 교육) 2	▲조병구(77 식공) 2	▲최인규(79 통계) 2	▲홍주연(83 입학) 2		△이상훈(05 교원)
▲이석준(01 경제) 2	▲이종천(84 통계) 2	▲장송수(88 언원) 2	▲조병권(85 경영) 2	▲최일상(66 경제) 2	▲황병희(03 불문원) 2	▲이사회비(10만원)	△이지은(95 영문)
▲이상규(89 행원) 2	▲이종현(46 국문) 2	▲장영상(66 식공) 2	▲조병호(61 정치) 2	▲최재오(57 법학) 2	▲황삼규(66 행정) 2	△김용선(73 사교)	△장영호(99 불교)
▲이상규(86 경제) 2	▲이종호(78 회계) 2	▲장익선(71 물리) 2	▲조석래(75 전자) 2	▲최종열(82 토목) 2	▲황선관(66 경영) 2		△정은주(00 국교)
▲이상룡(58 경제) 2	▲이좌범(64 사학) 2	▲장재혁(83 정의) 2	▲조성현(84 사회) 2	▲최종태(57 법학) 2	▲황선표(88 건축) 2	▲일반회비(2만원×34명)	△한은정(94 국민윤리)
▲이성진(79 공업경영) 2	▲이주호(05 정보통신) 2	▲장종진(84 토목) 2	▲조숙영(85 국사교육) 2	▲최주열(64 상학) 2	▲황영규(94 사대원) 2	△권나리(95 역교)	△한형숙(81 영문)
▲이성환(72 미술) 2	▲이주환(55 정치) 2	▲장현성(98 물리) 2	▲조양훈(69 영문) 2	▲최중열(56 정치) 2	▲황영식(95 반도체) 2	△권용호(03 신방)	총 610,000원
▲이성희(62 행정) 2	▲이준(56 생물) 2	▲전병옥(04 법학) 2	▲조영래(89 일문) 2	▲최지성(88 경영) 2	▲황윤걸(60 입학) 2	△권진영(87 불교)	
▲이세운(62 농학) 2	▲이준재(71 화공) 2	▲전수식(56 법학) 2	▲조영록(56 사학) 5	▲최진(72 국교) 2	▲황윤철(95 정보산업) 2	△권하나(00 중문)	
▲이승백(79 한의) 2	▲이중량(55 정치) 2	▲전수오(02 경영) 2	▲조영모(83 경영) 2	▲최창호(74 전산) 2	▲황인택(59 법학) 2	△김계성(83 영문)	
▲이승복(82 한의) 2	▲이지영(93 영문) 2	▲전영삼(87 토목) 2	▲조영숙(87 교원) 2	▲최천규(80 화공) 2	▲황재춘(89 행원) 2	△김민경(91 수교)	
▲이승철(79 경영) 2	▲이창근(72 체교) 2	▲전윤희(75 건축) 2	▲조원형(86 교육) 2	▲최철(69 수학) 2	▲황중환(96 행정) 2	△김수정(93 수교)	

CMS 이체

동창회관건립기금

장학기금

동대부속중학교 단체회비

이사 회비

동대부속여자고등학교 단체회비